

## 다시 꾸는 꿈, DMZ

December, 2017 | 김나래 기자

page 1 of 30

44

Feature

© Kim Naerang

조각과 같은 설치미술이나 건축은 속명적으로 대지를 떠나지 못한다. 덕분에 어떤 장소는 그 자체로 작가에게 영감을 주고 작품의 동기가자 작업의 처음과 끝이 되기도 한다. 여기 소개하는 9인의 안은 DMZ라는 아주 특수한 장소를 해석하고 상상한, 그야말로 장소특정적 작품들이다. '대지를 꿈꾸며...(Dreaming of Earth)'라는 제목으로 오랜 기간 프로젝트를 기획한 최재은은 DMZ가 아닌 곳에서 실험이나 설치를 할 생각이 없다는 물음에 아주 단호하게 그곳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나름의 기준으로 선정한 세계의 작가들에게 우리의 정자를 설명하고 정자와 같이 나무, 돌, 흙 같은 자연의 재료를 이용한 작품을 디자인하게 했다. 종자 보관을 위한 종자은행과 지뢰제거 안도 내놓았다. 비판은 창작보다 언제나 쉽다. 누구라도 마음 한 칸이 묵직해질 수밖에 없는 DMZ 논의에 있어서, 무엇이 정답인지 설블리 말할 수가 없는 것은 맞다. 다만 언제까지 외면만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창작하고 꿈꾸고 기대해야 한다.

Installation art, such as sculpture or architecture, is destined to be rooted to the land. Because of this, certain locations not only give inspiration to an artist, but also become the motivating force of a work or the beginning and end of a project. As will we discover, the works of the following nine individuals are location-specific works that have reinterpreted and reimagined the DMZ (Demilitarized Zone) in Korea – a very unique location. Jae-eun Choi, who has been planning this project for a long time under the name 'Dreaming of the Earth', responded firmly when asked whether he has other plans to experiment or install the project somewhere other than the DMZ that there is no point if it is not there. The idea of a Korean pavilion (*Jungja*) was explained to the selected global artists that Choi had picked according to her personal standards, and they were asked to design a piece made from natural materials such as wood, stone, and clay. They also proposed designs for a seed bank that will store seeds and a plan to remove the landmines. Criticism is always easier than creation. It is true that it is difficult to provide an answer when discussing a heavy topic such as the DMZ. However, this is also an issue that we cannot postpone forever. Someone has to create, dream, and anticipate.

연출 김나래 기자 | 디자인 최재은 | 자료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 사진  
 edited by Kim Naerang | designed by Choi Saerang |  
 materials provided by Kofa Gallery (unless otherwise indicated)

다시  
꾸는

꿈,

DM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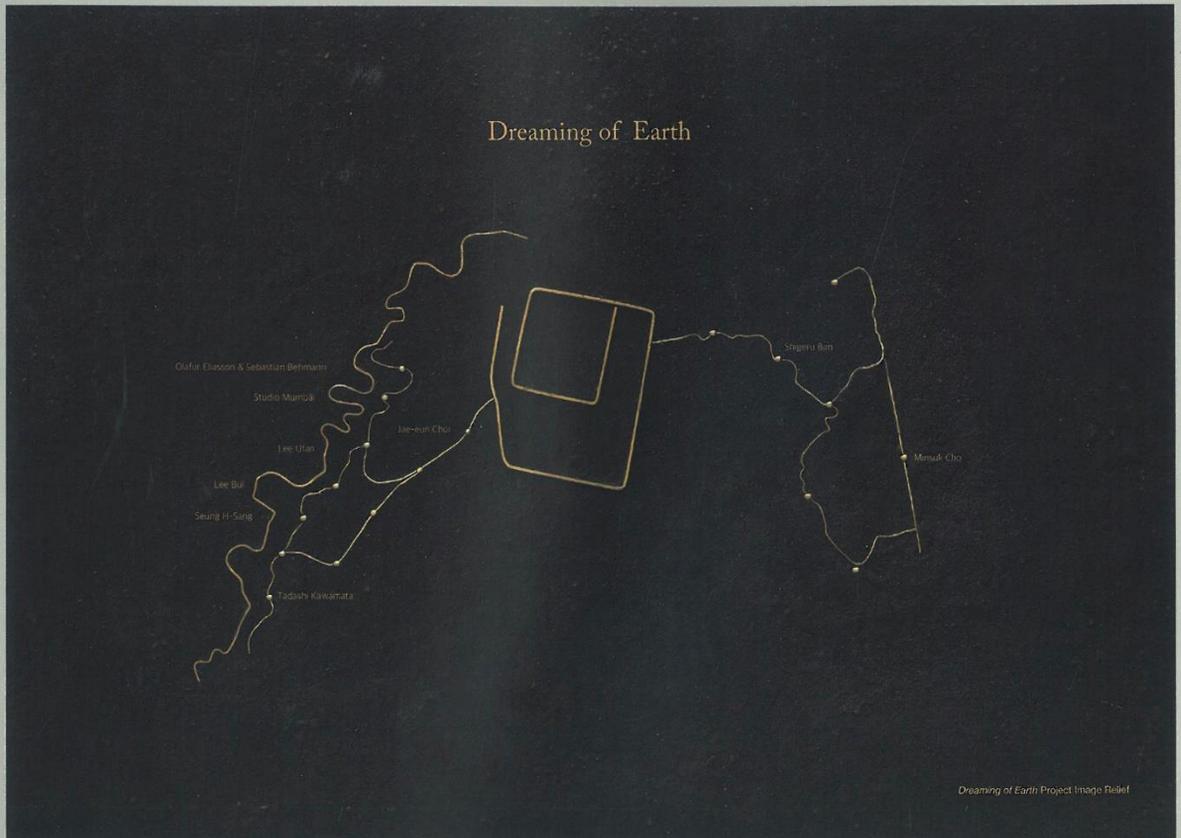
Dreaming  
Once  
Again -  
DMZ

## 대지를 꿈꾸며... Dreaming of Earth

최재은 / Jae-eun Choi

최재은은 조각, 설치, 건축, 사진, 영상물 아우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장엄한 스케일을 가지면서도 섬세하고 치밀한 조형을 구현해왔다. 'Nobody is There - Somebody is There' 시리즈, 'World Underground' 프로젝트 등 시간의 흐름과 유한성 속에서 그것을 지각하는 인간의 시선, 삶의 순환을 일관적으로 다룬다. 판문점을 다룬 영화 '길 위에서'를 제작하는 등 지속적으로 분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0년 베를린으로 이주했으며, 도쿄와 서울, 베를린을 오가며 작업 활동 중이다.

Jae-eun Choi's art practice spans sculpture, installation, architecture, photography, video, and sound, creating works that exhibit both delicate and precise formal composition and majestic scale. The artist is best-known for her consistent examination of themes such as the infinite passage of time and the concept of finitude, as shown through her series *Nobody Is There - Somebody Is There* and *World Underground Project*. In 1999 she created a docudrama on the Panmunjeom titled *On the Way*, after which she began to display a consistent interest in the history and division of Korea. She moved to Berlin in 2010, and currently works in Tokyo and Berlin.



‘대지를 꿈꾸며...’ 콘셉트 모델의 상세, 릴리프, 2017  
Detail of *Dreaming of Earth* Concept Model, Relief, 2017

1950년대 전쟁과 파괴로 얼룩진 한국의 DMZ가 6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름다운 자연으로 환원된 것은 우주의 본성이 생명과 미래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확연히 보여준다. 나는 세계의 많은 분쟁 지역이 모두 이러한 본성을 통하여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DMZ는 1953년 7월 27일에 확정된 남반과 북반 사이의 완충지역이다. 3년의 한국전쟁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자를 내고서야 겨우 이룬 휴전의 댓가인 DMZ는 한반도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을 기준으로 휴전일 당시의 전투 경계선에서 남북이 2km씩 후퇴하여 결정된, 동서로 약 250km에 남북의 폭 4km, 총면적 907km<sup>2</sup>의 공간이다. 이후 이곳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과 충돌이 끊이지 않았으며, 수십 년간 매설되거나 유실된 약 300만 개의 지뢰들이 흩어져 있다.

자연은 60여 년간 인간 없는 세상 DMZ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경이로운 생태계를 이루어냈다. 이곳에는 약 5,097종의 생물들이 서식하고 이 중 106 종은 멸종위기종이다. DMZ의 생태계는 인간사회가 만들어 놓은 쓸모없는 장치들과 무관하게 그들의 영역 속에서 낙원을 이루어낸 것이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연생태 보존지역으로서 다양한 식물 군집들이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서식해온 생태계의 보고이며, 지구촌의 소중한 자연 유산으로서 자리 잡았다. 자연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인류 생존의 근본을 자연에서 찾아야 하고, 최초의 단초를 자연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쟁의 피비린내 속에서 살아남은 DMZ의 생태계가 영원한 평화와 창조의 장으로서 인류의 자신으로 보존되길 바란다. '생명'이라는 본질에 더욱 접근하여 통일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의도이다.

'대지를 꿈꾸며...'의 장소로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강원도 철원군 DMZ 내에 있는 평창공원을 선택했다. 이곳에는 아주 오래전 역곡천을 끼고 도읍을 이루었던 공예(857~918)의 태봉국 도성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은 DMZ 안에서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다. 공예는 고구려의 정통성을 잇기 위해 905년 후고구려를 건국한 뒤, 백제와 연해주까지 아우르는 대동방국의 위대한 꿈을 꾸었다. 공예도성은 외성과 내성을 갖춘 이중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모는 내성의 둘레가 7.7km, 외성의 둘레가 12.7km이고 성벽의 폭이 11m, 높이는 낮은 곳이 1m, 높은 곳은 4m이다. 특히 성벽의 두께는 불가사의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름다운 평지터 건축으로 알려져 있다. 평민들의 주거 공간과 궁성이 공존하는 공예도성에는 이상적인 공동체 사회를 꿈꾸었던 공예의 비전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공예는 정토사상에 기초한 이상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나 또한 '청정한 국토'의 의미로 읽히는 정토사상을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으로 반영한다. 자연이 지배하는 세상 이곳 공예의 숲은 생명과 자연, 치유와 자비, 풍요와 미래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을 확신한다.

'대지를 꿈꾸며...'는 공중정원, 정자와 탑, 생명과 지식의 저장소, 지뢰제거 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중정원은 지면에서 3~6m 공중에 떠 있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남북과 좌우를 잇는 총 길이는 약 20km에 이른다. 이 통로 위에는 구조물이나 시설 이외에, 대지의 형태와 식물 군집들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구조물 정원이 위치한다. 통로와 정원들이 공중에 떠 있는 이유는 대지로부터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중이라는 공간은 지뢰, 자연 생태계, 인간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공중정원 위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의 개념을 도입한 12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정자와, 누구나 자유로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된 3개의 탐인 '새들의 수도원', '바람의 탑', '순환하는 나무'가 설치된다. 멀리서 들려오는 수많은 생명들의 울림이 바람을 타고 산과 강을 넘어 다가가, 그동안 일어났던 시간들을 환원해주지 않을까 눈앞에 펼쳐진 대자연 속에서 속삭이는 자연의 소리와 함께, 재회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으면 한다.

이 프로젝트는 시계루 반(시계루 반 아키텍츠 대표)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2015년 시작되었다. 휴머니즘으로 가득한 시계루 반의 건축은 일반적 의미를 넘어 새로운 건축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구조물들은 단순한 토목공사를 벗어나 궁극적으로 그곳의 생태계와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우리의 삶이 자연과 지속 가능한 공존을 이루는 하나의 표본이 되도록 접근하려는 것이다. 구조물의 장치들을 단순화하며, 자연 소재만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태계의 순환적 공간을 만들려고 했다. 구조물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은 강하고 유연한 소재로서, 예로부터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온 자원이다.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으로 응용하여 표현한 구조는 그 자체가 자연 생태계의 일부가 되어 60여 년간 인간 없는 세상에서 지탱해온 생태계의 영역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다.

또한 DMZ의 생태계와 접경지역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의 종자를 보존하는 종자은행과 그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지식 저장소를 제안했다. 장소는 최초의 안이 변경되어 철원 터널로 이동했으며 생명과 지식의 저장소는 이름으로 확대되었다. 종자와 지식은행은 DMZ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자생하는 5천여 생명들의 종자, 그리고 지구에서 사라져가는 106종의 멸종위기 종들의 씨앗과 유전자 데이터를 확보, 보존하고 나아가 이를 남북한을 포함한 세계 전체로 확대해 자연 생태계의 보호와 영구적 지속, 그리고 종자의 연구, 확산, 공유 및 순환을 통한 인류와 자연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종자의 증산을 통한 대물과 회수 과정을 통해 위기의 시기에 인류의 생존과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종자와 지식 은행 건립의 기본적인 의의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지식은 인류가 자연을 이용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이 보존되어야 한다. 종자은행과 마찬가지로 지식은행 역시 지구상에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위기나 재앙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둘은 모두 인류의 생존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대지를 꿈꾸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DMZ에 매설된 수많은 지뢰들을 제거해야 한다. 지뢰매설지역에는 지도가 존재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불행히도 한반도 DMZ와 인근에는 지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M-14 플라스틱 지뢰는 탐지도 어렵고 부패도 되지 않은 채 속몸의 땅을 지키고 있다. 나는 본 프로젝트에서 지뢰제거의 첫 단계로 남쪽 민통선 인근에서 지뢰매설 위치지도를 제작하여 실험하기로 했다. DMZ 안에는 60여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그곳에 존재하는 플라스틱은 M-14의 지뢰일 뿐이다. 즉 이곳에서 플라스틱만을 찾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M-14지뢰일 것이다.

플라스틱에 반응하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지뢰탐지용 스캐너 드론을 이용하여 지뢰 위치지도를 작성하는 이 방식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이 GPS를 이용한 궤적을 따라 저공비행을 하며 지상으로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상투과 레이더) 혹은 초광대역 투과 레이더 전파를 쏘아 반사되는 데이터로 땅속에 있는 지뢰를 탐지한다. GPS 좌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험을 거듭함으로써 지뢰제거의 가능성에 도달하려고 확신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DMZ 안에 존재하는 몇 백만 개의 지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이것으로 우리의 정토인 DMZ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 지구상의 1억 개 넘는 지뢰제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자연을 정복하기보다는 그 찬란함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다'는 한국인들의 자연 사상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군사적 긴장을 내재하고 있는 장소들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의 DMZ에 이와 같은 꿈이 구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인간과 자연의 본질적 관계를 기본 개념으로 하여 DMZ를 지속적으로 보존 가능한 환경으로 환원함으로써, 이번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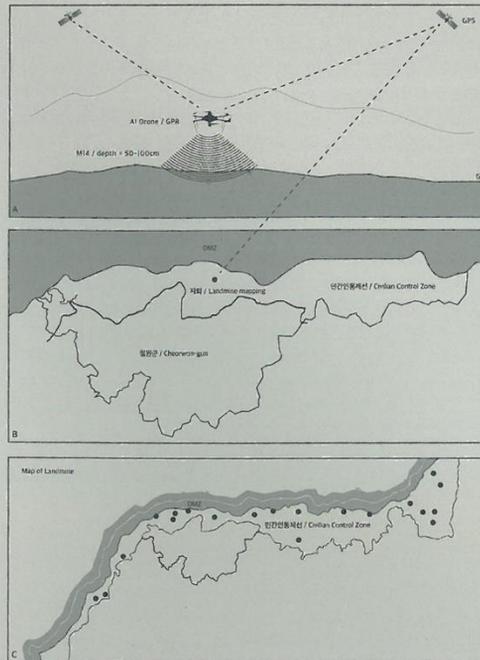
The DMZ (Demilitarized Zone) in Korea, which suffered the cruelties of war in the 1950s, has now after 60 years become a place of great natural beauty. This demonstrates how nature pursues life and the future. I believe the wounds of many regional conflicts around the world can be healed by the recuperative nature of the earth. I suggest the creation of the 'Dreaming of Earth' in these areas, beginning with the DMZ in Korea. The Korean DMZ is a buffer ar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stablished on 27 July 1953. The DMZ was the result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fter a tragic three years of war caused thousands of casualties. It is about 250 km long, cutting the Korean Peninsula across from west to east, and 4 km wide, 2 km to north and south each from the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It covers a total area of 907km<sup>2</sup>. Numerous incidents and incursions have continued in the DMZ and approximately 3 million landmines, which had been laid or lost for decades,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land.

The ecology of the DMZ is an invaluable place for living creatures that have survived in this abandoned environment devoid of human activity, thriving in their own ways for more than 60 years. These lives have established their own sacred spirit, one that can be attained only through self-organisation. It is a natural, protected ecological area where various plant communities have formed organically, turning it into a rich ecological repository.

I chose the Pyeonggang Plateau in Cheorwon-gun located at the centre of the Korean Peninsula, as the site of the 'Dreaming of Earth'. The site of the city wall of the Taebongguk Kingdom built by Gung-ye (857 – 918) which used to form the capital of the ancient kingdom around the Yeokgokcheon river is located in an area now cut half from the north to the south within the DMZ. Gung-ye, who founded the later Goguryeo in 905, continuing the legitimacy of Goguryeo Kingdom, had a grand dream of establishing the Daedongbangguk (The Great Eastern Kingdom). A historical record claims that Gung-ye, who was deeply influenced by Buddhism, built the city wall as a flatland fortress embracing the people and nature under the 'Pure Land' ideal. The Gung-ye Castle, in which the royal palace and the residential area of the common people coexist, is a historical relic that reflects Gung-ye's vision for an ideal communal society. Freed from human intervention since the division of Korea, this area has now formed a natural ecology. This place has become a true paradise that cherishes its long history—here the past flows through the present towards a vision of the future.

The 'Dreaming of Earth' consists of 12 *Jungjas*, 3 Towers and plan for the landmine demining. Paths, which are 3 – 6m high from the ground, connect these sites and the total length of these paths measures up to 20km. The Floating Gardens are on a more moderate scale and are located on the paths, taking different shapes according to the geographical features and plant communities of each area. These gardens are raised from the ground—this distance has been introduced not only to protect humans from landmines laid randomly in the area but also to protect nature from human impact. The space of the air plays an essential role in establishing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al ecosystem, human beings and the landmines.

On these floating gardens, twelve different *Jungjas*, inspired by the concept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hree towers will be installed. The towers will appear light but are firmly structured, so that people will be able to climb to the top. The sounds of countless lives echoing from far away will ride the wind, passing by mountains and rivers to reach us, and restoring those lost times to the present. I hope these places will be filled with emotional values, devising ground on which we



지뢰제거 매뉴얼  
Manual for demining

Courtesy of Studio Jae-an Choi

can talk about the joy of reunion with the majesty of nature unfolding before us, listening to its whispers.

The project began as a collaborative project with the architect Shigeru Ban (principal, Shigeru Ban Architects) in 2015. Ban's vividly humanist structures have created a new dimension of architecture that exists beyond general expectations. The structure of this garden requires more than mere engineering logic—it fundamentally aims to sustain a harmonious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ecology of the area and humans. It will create a desirable example of a sustainable co-existence between human life and nature. These structures, stripped of their more unnecessary elements, will get closer to the territory of the natural ecosystem that has survived for about 60 years across an environment uninhabited by humans. It will naturally mingle with the present state of nature and listen to the sound of the earth.

We suggest building a seed bank that will preserve the seeds of numerous plants that naturally occur in the DMZ and the border area, and a vault of knowledge for researching and studying them. The seed bank will form an organic connection with the ecology of the 'Dreaming of Earth'. The Seed Bank does not seek profit from any country, institution or individual. Instead, it will serve in the continuation of all the living things that inhabit the area. Yet, more fundamentally, it will provide a profound point of inspiration in our lives.

To implement the project, all the uncountable landmines of the DMZ

and the CCZ (Civilian Control Zone) should be removed. Typically, there are maps of minefields that show where the landmines are, but unfortunately there are no minefield maps of the DMZ or the surrounding area. The plastic landmines, M-14 in particular, are difficult to find and do not decay. Remaining forever underground, they prohibit people entering the area and maintain the status of the DMZ area as a land of death. In a project initiating the first steps to removing the landmines, I decided to make a minefield map of the CCZ in South Korea. By using a mine-finding scanner drone, which is equipped with AI, a landmine map will be drawn. This will be further implemented in collaboration between AI and people. In order to make this map, following GPS coordinates AI-equipped drones will use a ground-penetrating radar or shoot ultra-wideband penetrating electric radar waves while flying close to the ground. The map will be made by detecting buried landmines with the data from the reflecting

waves and then recording the GPS coordinates. Surely the possibility of removing landmines will be increased by repeating the experiments based on this map-making method. With this method, if we remove millions of landmines in the DMZ we can recover the use of our land from the DMZ. I hope that this will be helpful in the location and the removal of more than 100 million landmines across the world.

I hope that 'Dreaming of Earth', based on the nature-friendly ideology of the Korean people who dream of greater harmony with natural splendor rather dominance, will be fully realised in the DMZ, the location of the greatest military tension in the world. By emphasising the fundamental relationship that has always existed between humans and nature, 'Dreaming of Earth' will continue to create a sustainable environment in the DMZ and act as a bridge to bring forward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DMZ (Demilitarized Zone) in Korea, which suffered the casualties of war in the 1950s, has now become a unique natural space of great natural beauty. This responsibility has been passed on to the future. Indeed the existence of many important natural spaces around the world has been the responsibility on us of the earth. To grasp the location of the DMZ, I began the research in 2011. The DMZ is a buffer ar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stablished in 1953. The DMZ is the result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It is a strip 250 km long, cutting the Korean Peninsula across from east to west and north to south. It is 4 km wide and 250 km long. The DMZ is a buffer ar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stablished in 1953. The DMZ is the result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It is a strip 250 km long, cutting the Korean Peninsula across from east to west and north to south. It is 4 km wide and 250 km long.

The DMZ is a buffer ar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stablished in 1953. The DMZ is the result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It is a strip 250 km long, cutting the Korean Peninsula across from east to west and north to south. It is 4 km wide and 250 km long.

The DMZ is a buffer ar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stablished in 1953. The DMZ is the result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It is a strip 250 km long, cutting the Korean Peninsula across from east to west and north to south. It is 4 km wide and 250 km long.

The DMZ is a buffer ar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stablished in 1953. The DMZ is the result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It is a strip 250 km long, cutting the Korean Peninsula across from east to west and north to south. It is 4 km wide and 250 km long.

저어새 / Black-faced Spoonbill

흰꼬리수리 / White-tailed Eagle

노랑부리저어새 / Eurasian Spoonbill

호반새 / Ruddy Kingfisher

고라니 / Chinese Water Deer

산양 / Korean Coral

점박이물범 / Spotted Seal

금개구리 / Seoul Frog

쌍떡잎꽃 / Twinleaf

종나리 / Lillium Leichlinii

해당화 / Ramanas Rose

초롱꽃 / Chinese Ramp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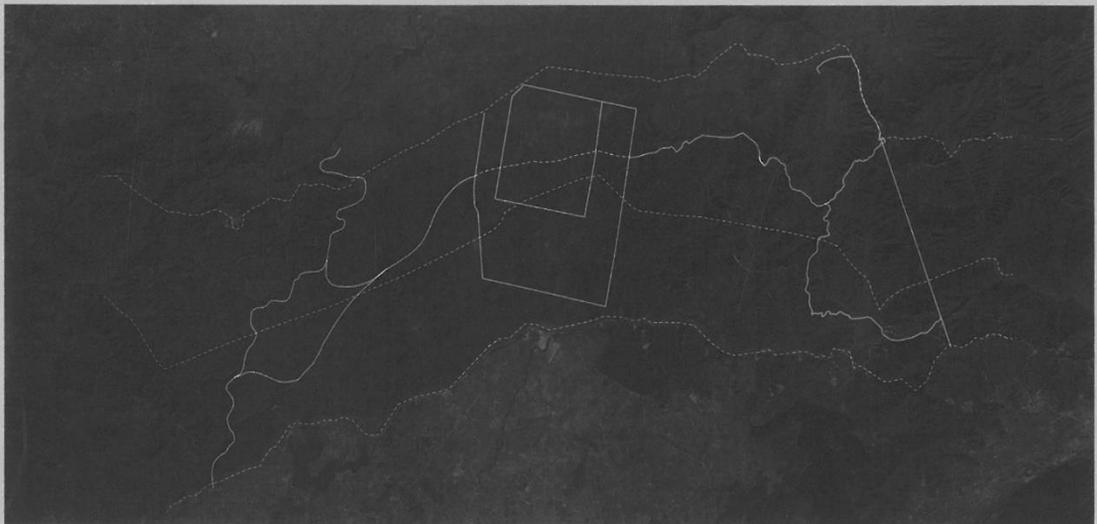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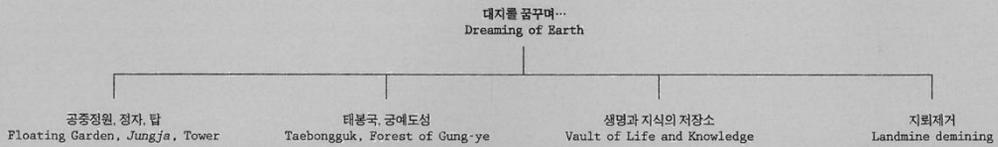
복주머니꽃 / Large-flowered Cypripedium

합박꽃나무 / Magnolia Sieboldii

Courtesy of Studio Jae-eun Choi

DMZ 생태계 멸종위기종 중에서  
Endangered species of the DMZ ecosystem

## 자연과 역사의 땅으로의 전환 A Land of Nature and History



Courtesy of Studio Jae-eun Choi

**공중정원, 정자, 탑**  
DMZ 지역에 13km를 걸쳐 가로지르는 대나무로 된 통로이자 공중정원을 제안한다. 정자는 서양 정원 양식에서 보이는 파빌리온(pavilion)이나 누각(pagoda)과는 다르다. 정원의 한 가운데 놓이는 독립된 형태의 건축이나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자는 일종의 파견된 건축물로, 자연으로 파견되어 있는 작은 집이자 자연의 일부인 것이다. 자연과 짐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시를 쓰고 노래를 한다. 과거 문인들이 이와 같은 정자를 자연 속에 지어놓고 수시로 시간을 보냈다. 전통적으로 정자의 형태는 땅에서 일정 높이 떠 있는 바닥과 기둥, 천장으로 이루어진다. 처음부터 벽이 없이 실내가 자연과 그대로 이어져 있다. 프로젝트에서 12개의 정자가

세워진다. 대나무 통로의 주요 지점마다 작은 공중마당이 있고, 그곳에서부터 마치 세포처럼 분열되어 나와 자연으로 파견되는 것이다. 정자 디자인에는 최대한 DMZ에 존재하는 재료들, 돌, 흙, 나무, 물, 바람, 빛 등을 사용하길 바랐고 인공적인 재료들을 배제했다. DMZ의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본 프로젝트의 취지와 일관된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참여하는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정자들을 디자인한다. 이들의 참여는 세계가 DMZ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추구하는 노력을 대변한다. 사람들은 이곳을 거쳐 남북을 자유로이 왕래할 것이며 자연과 평화, 그리고 그곳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과 함께 사유하고 답소를 나눌 것이다.

정자는 앓을 곳과 그늘, 은신처를 제공하는 소규모의 공간으로 이상적이다. 정자는 비건축적 오브제로서 사람들을 자연의 생태계와 조용히 대면하게 하는 헤테로토피아로 기능한다. 1953년 체결된 휴전 협정서(Armistice Agreement)를 자연-역사 협정(Nature-History Agreement)으로 전환한다. 65여 년간 이어진 DMZ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구상된 계획이다. 참여 건축가와 작가들 역시 그러한 역사적, 철학적 접근을 기준으로 선정되고 초청된다. 정자는 소규모 프로젝트이지만,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평화로 나아가는 데 커다란 한 걸음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 태풍국, 궁예도성

905년에 궁예는 도성을 송악에서 철원으로 천도했는데, 이 도성을 지으며 그는 정도사상에 기초한 이상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청정한 국토'라는 의미로 읽히는 '정토'를 당대에 구현함으로써 궁예는 이 지역을 모든 백성이 평등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건설하고 싶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이 장소의 개념은 고대 인도의 정복왕인 아쇼카가 조성한 '아쇼카의 숲'을 참조할 수 있다. 아쇼카는 자신이 벌인 오랜 정복전쟁에 대해 참회를 하면서 자신의 나라에 6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숲을 조성했다. 이 숲은 생명과 자연, 치유와 자비, 풍요와 미래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궁예도성 유적지는 현재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그것이 지닌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서 부각될 수 있다.

### 생명과 지식의 저장소

종자는 생명의 토대로서 자연의 지혜와 역사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된 유전자 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농업의 거대 산업화는 종자 다양성을 종대하게 위협해왔다. 더불어 같은 기간 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과도하게 전개된 지적 재산권법은, 이전에는 공동의 선을 위한 문제들로 여겨진 것들조차도 소수가 독점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공동자산이라고 여겨졌던 생명과 지식 같은 것들이 최근에 급속히 사유화되고 상품화된 것이다. 종자은행은 파괴되었던 자연을 다시 소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종자의 연구, 공유 및 순환은 인류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다.

### 지뢰제거

인공지능 로봇은 드론과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로봇들을 이용한 지뢰제거 계획을 상상해본다. 이들은 광중에서 지뢰를 발견하여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킨 뒤 그것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직업 기준으로 볼 때, DMZ 안의 지뢰제거에 소요되는 시간이 498년이라 한다. 인공지능 로봇은 이보다 빨리 지뢰를 소멸시키고 평화로운 생태계를 자연에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인간들은 두 다리를 잃지 않을 것이고 대지는 회복될 것이며, 땅에는 씨앗이 자리를 잡고 나무뿌리들이 제자리를 찾아 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계와 인간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희망한다.

### Floating Garden, Jungja, Tower

I suggest a Floating Garden, which is also a pathway made of bamboo across over 13km of the DMZ. The structure consists of a pathway that is elevated 3-6m from the ground and Jungja separated out from the main passage at every kilometer. In this project, Jungja connotes a different meaning from that of a pavilion or pagoda used in western gardens. In the context of this project, a Jungja is neither an independent architecture nor a structure in the middle of garden. It is a kind of a 'dispatched' structure—a small dispatched house in the garden that is simultaneously a part of nature. In other words, it can be construed as an interim border between nature and a house. Inside of the Jungja, people would write poems and sing while appreciating nature. In Korea, many scholars and the literati of the past

often spent time in Jungja built in nature. Traditionally, Jungja consists of a floor—elevated from the ground for certain distance—pillars and a ceiling. There are no walls in the structure so as to allow a direct connection to nature. The project intends to build 12 cottages. Small floating platforms will be built in every important spot of the pathway connecting North and South Korea across the DMZ.

The design of the Jungja will utilize natural materials from the DMZ area—for instance, stones, soil, trees, water, wind, and light—ideally excluding any artificial materials. The use of these materials is parallel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roject: to protect and respect nature and the ecology of the DMZ. Architects and artists from different nations will be commissioned to design the Jungja. The prospective participants will represent the cohesive effort to promote peace in the DMZ,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ultimately, global peace. The project will allow for a free passage between two Koreas and provide visitors a place for contemplating the meaning of peace and opening up a dialogue with nature and countless living things in the area. The Jungja will also ideally serve as an intimate space which offers a place to sit and functions as a shadow and shelter. As a non-architectural object, the Jungja serves as a heterotopia—a concept concretized by Michel Foucault to describe spaces that function in non-hegemonic conditions—where people could silently encounter the ecosystem of nature. In addition, as a part of Nature-History Agreement, the design of the Jungja would be based on a profound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ng artists will be selected and invited based on the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the project, although intimate in its scale, will offer a single yet major step towards the reunification of Korea and world peace.

### Taebongguk, Forest of Gung-ye

The Buddhist monk Gung-ye (857-918) established the country of Taebongguk in order to preserve the legitimacy of Goguryeo and built the castle in the capital of the country. In 905, Gung-ye moved the capital city from Songak to Cheorwon. By building this castle he wanted to establish an ideal nation based on the Buddhist doctrine of Pure Land. By implementing the Pure Land in his time, Gung-ye wanted to build a country where all the people could live independently and equally. The concept of this place where nature and humanity coexist can be referred to as an 'Ashoka Forest' created by Ashoka, an emperor of ancient India. Ashoka planted a large-scale forest with six zones in his own country as penitence from the long wars of conquest. This forest would become the most important step for life and nature, healing and mercy, and abundance and peace in the future.

### Vault of Life and Know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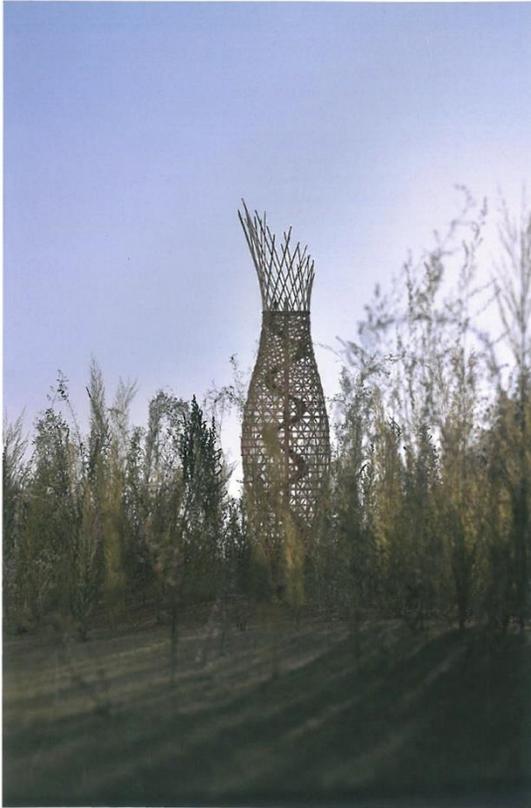
Seeds are the foundation of life, embracing wisdom and history of nature. Over the last few decades, globally, an accelerated abuse of genetic engineering has caused the mass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significantly threatening biodiversity. During the same period, there has been a closely related advent in the excessive progression of, for examp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help monopolize and

industrialize what used to be considered to be matters for the common good. In other words, what has been known to be the essential commons in the public domain, especially regarding life and knowledge, has been radically privatized and commoditized. Through the seed bank, a place for meeting, sharing, and exchanging in the process of the restoration of the destroyed nature can be created. The research, expansion, sharing, and circulation of plant seeds will expand to East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and will finally contribute to the survival and peace of humanity.

### Landmine Demining

It will be possible to combin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with drones that are already widely used. I imagine a land mine removal project using these robots. These robots will detect mines from the air, move them safely to some other place and finally destroy them.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complete removal of landmines by the Korean army will take 498 years. The duration might be significantly shortened by introduci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these robots may be able to remove landmines and resume the peaceful ecosystem in nature much faster than human efforts. No one will lose their legs, the earth will be restored, seeds will be planted and trees will take root—we will be able to cultivate the Dreaming of Earth. Besides the DMZ thes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might be able to remove 100 million landmines buried all over the world much more efficiently than humans. I hope that this collaboration between human and machine will come true.

최재은 Jae-eun Choi  
순환하는 나무 Recurring 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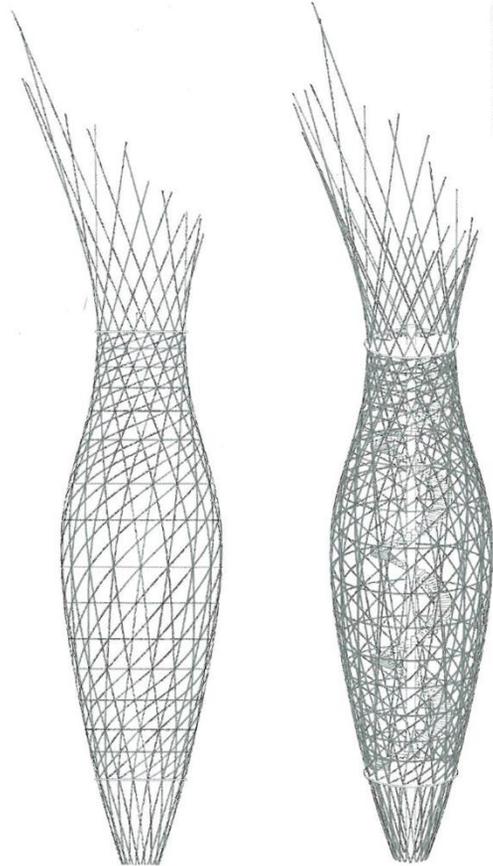
©Studio Jae-eun Choi

— '순환하는 나무'의 모형  
Model of the Recurring Tree

공중정원 남측 입구에서 공예도성 쪽으로 접어드는 군사분계선(MDL) 근처에 '순환하는 나무'를 세운다. 높이 30m에 폭 7.7m의 크기로 꽃의 대궁을 형상화했다. 자연 빛이 내부로 투과되고 꽃과 새들과 바람이 함께 드나들 수 있는 커다란 나무 탑이다. 구조를 이루는 재료는 한반도를 둘러싼 근대사의 주요 국가들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목재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지역은 고대와 중세에는 중국과 일본이, 근대에 이르러서는 러시아와 미국이 지정학적 마찰을 일으켜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곳에는 점증하는 전쟁의

위기가 감돌고 있으며 핵무기를 위시한 화력이 집중되어 있다. DMZ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이지만 또한 가장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순수한 자연이 펼쳐진 공간이기도 하다. 숲과 동물들로 채워진, 생명이 순환하는 평화의 성역으로 진화할 수는 없을까? 자연이 제공하는 재료들로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세울 수는 없을까?

*Recurring Tree* will be built on the boundary marked by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close to the southern entrance of the



©Studio Jae-eun Choi

Floating Garden and towards the Gung-ye Castle. At 30 metres high and 7.7 metres wide and representing a flower stalk, the *Recurring Tree* is a large wooden tower that allows natural light to pass through to its interior, in which flowers can be seen and through which birds and breeze may pass. The wooden structure of this tower is intended to be built from material donated by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that sur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At this moment there is a growing sense of crisis faced with

possible war, as the most powerful known weapons of war, including nuclear weapons, are concentrated in this place. The DMZ, which has become one of the most dangerous places on the planet, is also a place of untouched, pure nature. Could we turn this place into a life-enriching sanctuary of peace, where forests and animals may thrive? Can we together build the *Recurring Tree*, a message of hope, with materials provided by nature?

시게루 반 + 최재은

Shigeru Ban + Jae-eun Choi

바람의 탑과 꿈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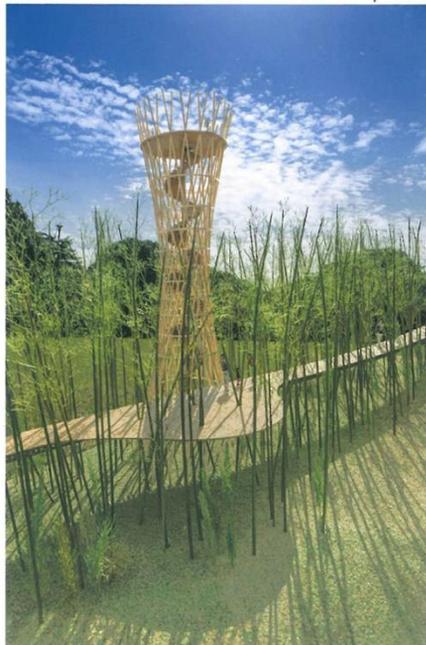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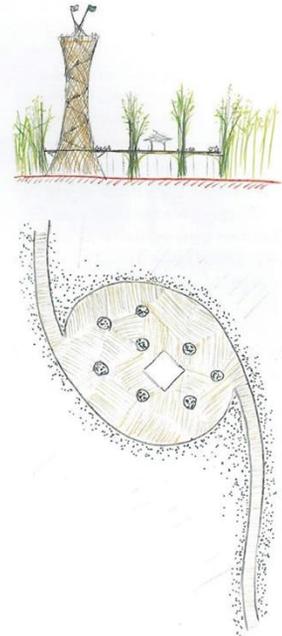
Winds Tower and Dreaming of Earth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대나무로 된, 다리 모양의 통로를 제안한다. 내가 벽돌을 쓰고 싶지 않은 것은, 이곳에 지뢰가 많고 위험한 곳이어서만은 아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지역에 콘크리트 구조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산 대나무가 지지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구조는 튼튼하다. 다만, 이 지역에 대나무가 없다는 것을 듣고 조사를 시작했다. 여기와 위도가 비슷한 일본의 아오모리에는 대나무가 자란다. 그래서 여기에도 대나무가 자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실험을 했다. DMZ 근처에 대나무를 심고 자라는지 본 것이다. 불행히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만 했다. 나는 탄화된 나무 말뚝을 쓰기로 결정했다. 이 공법은 아주 전통적인 건물 기초 공법이며, 전통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에서 자주 쓰인 것으로 알고 있다. 콘크리트 기초를 만드는 대신에 이러한 전통적인 말뚝을 이용해 숲 사이를 연결하는

공중정원을 지지하게 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로 또 다른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게루 반 발표에서 발췌)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project for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I propose a bridge-like passage using bamboo. I do not want to use bricks, not only because there are landmines still deep within the site and pose a danger to inhabitants, but also because I do not want to make a concrete structure in such a peaceful area. We can make the structure supported by natural bamboo, and a firm structure is possible. However, I was told that there is no bamboo now in this area, and then I embarked on some research and found that Aomori, Japan, which is on the same latitude as DMZ, has natural bamboo. Therefore, I thought bamboo could also grow naturally in the DMZ area. We did a test

planting bamboo plants near the DMZ area to find out if they would grow. Unfortunately, this experiment was not successful. Therefore, I was asked to think about other alternatives. I decided to chose wooden piles which have to be carbonized. We have to bend them and we will make the surface with charcoal. This is very durable. This will protect many insects, and is a very traditional way of making a foundation for building. I think this method is often used traditionally in China, Korea, and Japan. Instead of making a concrete foundation, we can use these traditional piles in order to support the passage floating between the forests. I think we can make another prototype centred on this idea in the near future, and then continue working on this project. <excerpt from the presentation given by Shigeru Ban>



시게루 반은 1957년 도쿄 출생으로 쿠퍼 유니온 건축대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도쿄에서 시게루 반 아키텍츠를 설립했으며, 1995년, 유엔 난민 고등관무관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자원봉사 건축가 네트워크(VAN)라는 NGO를 설립했다. 2011년부터 교토조형예술대학 교수로 활동 중이다.

Shigeru Ban, born in Tokyo in 1957, graduated from the Cooper Union School of Architecture. In 1985, he established Shigeru Ban Architects, a private practice in Tokyo. Then in 1995, he began working as a consultant to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at the same time established an NGO, Voluntary Architects' Network (VAN). He has been a professor at Kyoto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from 2011.

'바람의 탑'과 교각 모형  
Model of the elevated walkway and Winds T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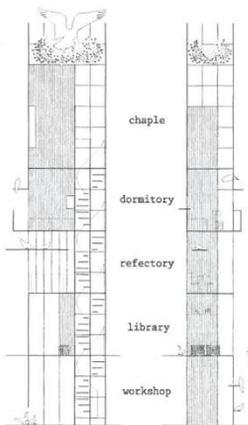
승효상

Seung H-Sang

새들의 수도원

Bird's Monastery

이 시대는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단절되어 있었다. 이곳에 가기 전 DMZ 지역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사람의 흔적이 있을 수 없는 곳이나까 많은 수풀과 밀림, 평화로운 풍경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이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밀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초지만 있었는데 이 초지도 황량했다.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굉장히 강렬해서, 여기에 수도원을 하나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수도사에 대해 떠올리게 됐다. 세상에서 스스로를 추방해 세상의 경계 바깥에 있는 수도사의 분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18장 36절의 구절과 닮아 있다. 예수가 죽었을 때 예수의 죽음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서둘러 따라서 순교한다. 목숨을 내놓는 순교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자기 일상을 버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수도원의 출발이다. 11세기 수도원의 세력이 커지고 변하자, 수도의 진정성을 찾는 수도사들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나 베네딕트 규칙을 철저히 따르기 위해 시토회가 창설됐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베네딕트 규칙서』의 3개 초항은 청빈, 통정, 순종이다. 수도원은 클로이스터(cloister) 혹은 모나스티리(monastery)라고 하는데, 클로이스터가 깊어 있다는 어원에서 비롯된 반면 모나스티리는 자발적으로 침묵과 은둔을 하는 것이다. 프랑스 알프스의 그랑 샤투레즈는 모나스티리의 본산으로, 이 수도원의 일상을 찍은



Section

『위대한 침묵(Into Great Silence)』이란 영화가 있었다. 시토회 수도사들은 재물과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동, 독서, 기도와 찬송을 일상으로 삼는다. 수도원을 짓는 일은 영성 활동 자체였다. 르 토로네 수도원은 아름답고 고요한 빛으로 가득하다. 바닥, 벽, 천장이 지역의 들 재료 한 가지로 되어 있다. 벽체가 지붕을 지지하므로 창문을 마음대로 내지 못해 내부가 대체로 어둡다. 어두운 가운데서 아치형의 작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만드는 공간이 감동적이다. 르 코르뷔지에의 라 투레트 수도원은 르 토로네 수도원의 영향을 받았다. DMZ 일대에는 검독수리, 왜가리, 까막딱따구리와 같은 우리의 새들이 산다. 이 새들이 머무르면서 명상할 수 있는 탑을 세운다. 저층부에 도서관, 식당을 만들고 그 위에 숙소를 둔다. 가장 꼭대기가 예배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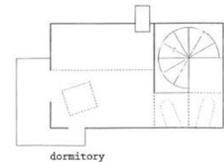
(승효상 발표에서 발췌)

This zone demonstrates a disconnect between the west end to the east end. Before I arrived, I had experienced a fantasy about the DMZ. Since there has been no trace of human beings for decades, I expected many bushes, jungle foliage and peaceful landscapes to exist, but this expectation was shattered. The jungle was nowhere to be found, and there is only grassland, which was also very desolate. The memories of my visit were so intense that I thought I would want to build a monastery, and I came to think about the monks. A monk remains separate from the world of his own volition. Jesus Christ said that he does not belong to this world -- but my kingdom is from another place. Those who wanted to follow Jesus' death decided to die when Jesus was dead. Martyrdom is the beginning of a monastery where people who give up their daily routines. They even lay their lives out. *The Rule of Saint Benedict* is a book on the regulation of the monastery that continues to be used to these days, and details the three monastic vows that are poverty, chastity, and obedience. In the French Alps, the Grande Chartreuse is the home of the Carthusian religious order, and a movie called *Into Great Silence* depicts the daily life of this monastery. The Cistercian monks, following the Benedictine rules, routinely do hard labour, reading, prayer and hymns to free themselves from wealth and physicality.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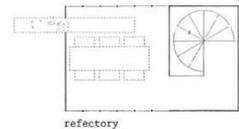
building of the monastery was a spiritual activity itself. The interior of Le Thoronet is surrounded by a beautiful and calm light. The floor, walls and ceiling are made of one stone material. Because the wall supports the roof, the window cannot be freely moved, so the interior is generally dark. In the middle of the darkness, the space created by the light coming through the arched small door is touching. La Tourette of Le Corbusier was influenced by Le Thoronet. In the DMZ area, birds such as golden eagles, herons, and black-necked woodpeckers thrive. I designed a tower in which these birds can stay and meditate. The tower has a library and a refectory on the lower floors, and a dormitory on top of them. The top is the chapel. <excerpt from the presentation given by Seung H-S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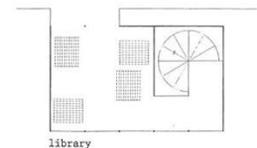
chap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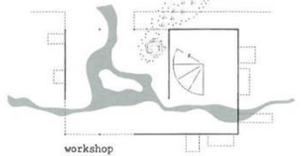
dormitory



refector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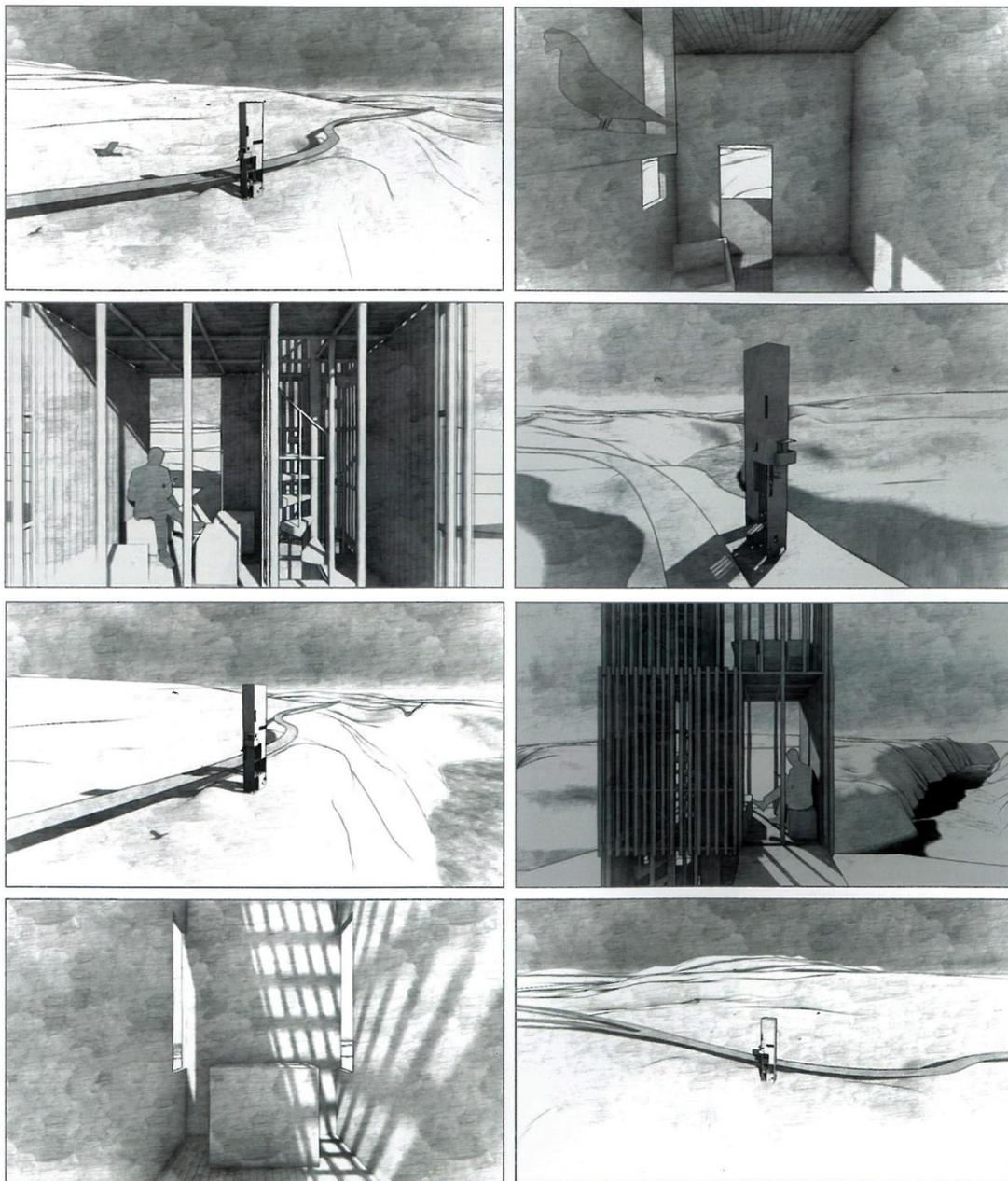


workshop

Plan

승효상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비엔나 공과대학에서 수학했다. 15년간의 김수근 문하를 거쳐 1989년 이로재(履露齋)를 개설하여 현재 대표로 있다. 서울대학교에 출강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가르친 바 있다. 20세기를 주도한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민지의 미학'이라는 주제를 그의 건축의 중심에 두고 작업하면서 김수근문화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여러 건축상을 수상했다. 2008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총감독으로 활동했다. 서울시 초대총괄건축가로 선임되어 2016년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현재 비엔나대학 객원교수로 서울과 비엔나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Seung H-Sang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ontinued his studies at the Technische Universität Wien in Austria. Seung received tutelage under the prominent architect Kim Swoo Geun from 1974 to 1989 and founded his firm IROIE Architects & Planners in 1989. Seung H-Sang completed his office as the City Architect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2016 and currently works between Seoul and Vienna as a guest professor at the Technische Universität Wien.



승효상, '새들의 수도원', 비디오, 1분 48초, 2017  
Seung H-Sang, *Bird's Monastery*, video, 1min 48sec, 2017

조민석

Minsuk Cho

중심, 시작점: 생명 저장소와 지식 저장소

Center, Starting Point - Vault of Life and Vault of Knowledge

철원의 터널은 산지 아래 공간을 깊숙이 가로지르기 때문에, 보존을 위한 저장소로서 최적의 물리적 환경을 제공한다. 길이 3.5km의 기존 터널은 남북 방향으로 5도의 기울기를 가지며 완만히 상승한다. 북쪽의 터널은 남측보다 낮게 위치해서, 산 아래 약 300m 깊이에 있다. 이에 냉동된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게 일정한 기후 관리를 요구하는 '생명 저장소'를 북측터널에 위치시키고, 비교적 기술적 문제가 적은 '지식 저장소'는 북측보다 덜 깊은 남측 터널에 둔다.

기존 철원터널의 물리적 변형을 가능한 최소화하고자 한다. 유일한 물리적 개입은 새로운 시작점으로 생각하는, 즉 인간이 만든 두 개의 선인 국경선과 터널이 평면에서 교차하는 지점에서 일어난다. 이 교차 지점은 낮은 계곡이어서, 10m 정도의 높이 차이로 지표면과 터널이 가장 가까운 지점이기도 하다. 국경선이 계곡을 가로지르는 것은, 양측이 교차점을 점유하며 계곡에 많은 주검을 남기는 전쟁을 했기 때문이다. 이곳에 지면과 터널을 연결하는 직경 30m, 깊이 10m의 나선형 경사로 원추 형태로 정의된 비워진 공간을 제안한다. 정밀 체석 기계로 모듈화된 화강암 블록을 채석하는 방식으로 이 공간을 만든다. 터널과 만나는 경사로의 가장 낮은 지점에는 직경 12m인 온천 연못이 위치한다. 이 공간은 DMZ 내의 빛물을 위한 물길이자 야생동물들이 온천수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된다. 또한 북측과 남측의 자연과 문화에 관한 아카이브를 관리하는 소수의 연구자들이 관리 작업 도중에 잠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쉬고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터널을 하늘과 연결하는 이곳은 '지형 침술'과도 같다. 모든 것이 끝났던 곳에서 새로운 질서와 희망을 통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기 위해, 수십 년의 분단으로 인한 긴장 혹은 막힌 '혈'을 풀어주는 상징적인 장소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두 저장소는 시작되어 각각 북측, 남측 방향으로 확장한다.

마지막으로 터널의 외부 북측 지상에는 두 가지 아카이브의 준비 과정을 위한 '생명 저장소' 준비시설, 남측에는 '지식 저장소' 준비시설이 자리 잡는다. 남과 북의 새로운 시작의 위치에서 암석 절단기로 떨어진 화강암 블록은 두 개의 준비시설들을 위한 화강암 기단이 된다. 두 기단은 두 시설의 장소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공중 정원의 길과 연결된다. 터널 중심의 비워진 원형 공간과는 달리, 두 기단은 같은 크기의 사각형이다. 종요의 월대와도 같이 이 기단들은 북측과 남측의 건축가들이 협력 작업을 통해 디자인된 두 개의 아카이브 준비시설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땅'이 된다.

The existing tunnel in Cheorwon is 3.5km in length, inclined at a constant five degrees toward the South, and accommodating the optimum conditions for a protective vault as it delves deep down below the mountainous terrain. From the starting point, the northern side of this tunnel is located in a deeper underground space than the south, below mountains as rising high as 300m above. We suggest here the *Vault of Life* as it requires a stricter climate controlled environment to preserve its frozen seeds. The *Vault of*

*Knowledge*, technically less complicated, will be located along the southern portion from the center.

This proposal intends to modify the existing physical context in the most minimal way possible. The only exceptional physical intervention we propose is at the center, what we consider to be the new beginning, and where the two man-made lines, border and tunnel, intersect in the plan. This point of intersection is approximately 10m below the valley where the surface of the earth is

closest to the tunnel. The crossing of the border line at the lowest point in the valley is not a coincidence. This type of war was about both sides trying to occupy the higher terrain, creating a division at the center of this mountainous peninsula and leaving many casualties in the valley. We suggest a void 30m in diameter and 10m deep defined by a conical ramp. This space is created by quarrying modular granite blocks with precision quarry machines. Where the bottom of this ramp meets the tunnel, there is a hot spring pond 12m in diameter. This path collects DMZ rain fall and allows for wildlife to access the hot spring pond. This void is also for the few humans, from both Koreas, who will occasionally come here to rest in fresh air between maintenance work for the two related archives, to meet either on purpose or by chance. Much like 'landscape acupuncture,' this is where everything ended is where everything starts again, with new order and hope, symbolizing relief from decades of tension and division. The two vaults start here, at the center, and grow toward both the south and north. Lastly, each located at a distance from the tunnel, above ground, the preparation facility for the *Vault of Life* is to the north of the border and the preparation facility for the *Vault of Knowledge* to the south. Each podium is composed of granite blocks excavated from the 'Center,' between the two vaults. The two granite podiums that mark the site of the two preparation facilities connect to the *Floating Garden*, and embrace the Cheorwon Tunnel. In contrast to the proposed circular center void, the sites of both preparation facilities are marked by two square podiums. Resembling the grand podium of Jongmyo Shrine, it becomes the grounds for the two archive preparation facilities, each one designed by an architect from the North and South respectively, or in collaboration.



연못의 두루미가 본 조망  
Crane's eye view from the p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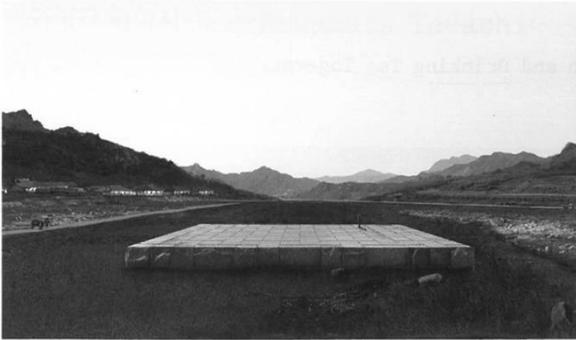


'중심, 시작점'의 단면  
Section of Center, Starting Point

Courtesy of Minsuk Studi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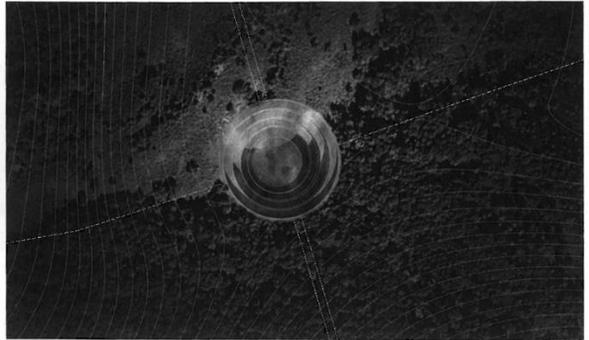
Courtesy of Minsuk Studios

Courtesy of Mass Studies



북측 기단, '생명 저장소'의 준비 시설  
Northern Podium: site of the preparation facility  
for the *Vault of Life*

Courtesy of Mass Studies



'중심, 시작점', 두 선의 교차점  
The crossing of two lines of the Center, *Starting Point*

Courtesy of Mass Studies



'중심, 시작점' 남측에서 본 풍경  
View from the South looking to the North of Center, *Starting Point*

조민석은 2003년 서울에서 매스터디스를 설립했다.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공동 기획했고, 2014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2014년 삼성 플라토 미술관에서 (매스터디스 건축하기 전/후) 개인전을 열었다.

Minsuk Cho founded the Seoul-based firm Mass Studies in 2003. Active beyond his practice, he co-curated the 2011 Gwangju Design Biennale, and received the Gold Lion for Best National Participation for his role as the commissioner and co-curator of the Korean Pavilion for the 14th Venice Architecture Biennale. Cho held a solo exhibition titled 'Before/After: Mass Studies Does Architecture' at the PLATEAU Samsung Museum of Art in 2014.

이우환

Lee Ufan

상봉다정(相逢茶亭)

A Pavilion (*Jungja*) for Reunion and Drinking Tea Together

이 콘셉트는 가운데 강을 끼고 끊어진 아치나 다리처럼 양쪽에서 바라보고 차 마시는 정자이다. 남북 강 양쪽에 세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우선 한쪽만 세워서 점차 건너편에도 세우게 하고 싶다. 이 콘셉트는 다리나 아치를 연상시키고 한층 높이를 바라보고 만나고 싶은 에스프리의 장소를 나타낸다. 모든 소재는 철판과 철골로 만든다. 계단 위에 2m 사각 공간과 가느다란 난간을 세운다. 계단 높이가 5m, 계단 폭 1m, 계단 양쪽에 1m 높이의 난간(가늘게), 계단 높이가 25~30cm. 철골을 지하 3m까지 내림.

The concept of design is to build a pair of *Jungja* which looks like disconnected arch or bridge along the river so as to function as a place where one can drink tea from each side. It would be ideal to build a pair of *Jungja*, one in the North and another in the South, across the river. However, if this is not possible to realize, I wish to build one *Jungja* in the South, and then build the other one in the future. It aims to remind people of a bridge or an arch, while representing a space of esprit where one can encounter what lies beyond at a higher altitude.

All the materials for *Jungja* are made of steel plates and steel frames.

At the end of the stair, there will be a 4m<sup>2</sup> space built with thin rail.

Height of total stairs: 5m

Width of stairs: 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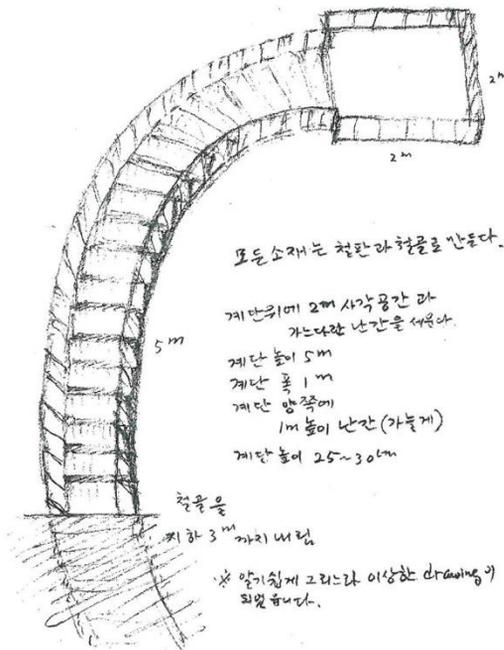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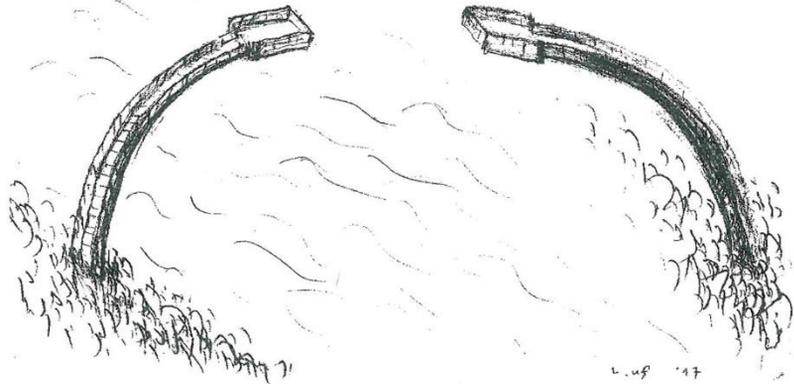
Height of thin stair rail: 1m

Height of each stair: 25~30cm

The base of stairs: 3m under the ground

이우환은 서울대학교 미대를 중퇴하고 1956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전위 예술운동인 모노하(物派)의 이론과 실천을 주도하며,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가진 바 있다. 2011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회고전(이우환: 무한의 제시)을 개최했고, 2014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대규모 조각 전시를 가졌다.

Lee Ufan dropped ou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moved to Japan in 1965. He led Japanese avant-garde art movement Mono-ha and participated in several solo and group exhibitions. Recently he held his retrospective 'Lee Ufan: Marking Infinity' (2011) at Guggenheim Museum and a huge scale of sculptural exhibition 'Lee Ufan Versailles' (2014) at Chateau de Versailles.



## 카와마타 타다시

## Kawamata Tadashi

## 동지

## Nest



절벽 위 '동지'의 최종 모형  
Final model of the Nest on the Cliff

한국의 DMZ는 정치적으로,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장소이다. 이곳에는 아무 사람도 없다. 많은 동물들과 독특한 경치가 있다.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고 평화로운 곳으로 보인다. 그러나 땅은 지뢰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이곳을 걸어 지나갈 수조차 없다. 북한과 한국 사이의 아이러니한 공간이다. 아마 미래에는, 양국 모두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선택한 곳은 긴 강을 끼고 있고, 지형에 높낮이가 있는 곳이다. 고도가 다양한 덕분에 새들이 이 곳을 찾는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곳의 한 절벽을 골라 큰 새 동지를 만들려고 한다. 새 동지는 적이나 동물, 자연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은유하기도 한다. 이 '동지'는 새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방문하고, 머무르고, 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다. 지역의 나무들로 만들어진다. 새 동지와 비슷해 보이겠지만 그보다 크다. 또한 이 사이트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상징적이고, 기념비적이면서 의미 있는 구조물이다.

**기술 노트** 모든 재료는 이 지역의 나무이다. 목재 시공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식이다. '동지'는 길이 15m, 폭 15m, 높이 10m의 크기로 앞쪽은 폭 1m, 길이 20m의 나무 바닥으로 된 작은 연결통로가 있으며 이 통로가 동지 안으로 연결되며 교차로처럼 보이기도 한다.

The DMZ in Korea is a very special site (politically, naturally, environmentally), a no man's land. It has many animals and a special panoramic vision that stretches across the site. It could be such a beautiful area and become a very peaceful land. The ground however is full of bombs (landmines). People cannot visit or even walk here. It is therefore a very paradoxical place, locat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erhaps in the future, people from both sides of the border will be able to visit and walk through the DMZ.

The location I have chosen features a long river and the land is notable for its undulations, ups and downs. There will be many different altitudes, and as such there are many birds flying in this area. For these reasons I would like to make a big bird's nest on just one of the cliffs in this area. The nest is a metaphor for protection from the enemy, a safe space for animals within the natural environment.

This Nest is not only for birds. When people come to visit it, they can stay and rest a while there. It is a safe space for them. This is a

nest made from wood sourced from this area. It looks like a normal bird's nest, but it's a big one. This is a symbolic, monumental and meaningful structure designed specifically for this site.

**Technical Note** All the materials are wood from the surrounding area. The wood construction is very simple and easy. The size is 15m long x 15m wide x 10m depth. The front of this nest connects to the small passage (1m wide x 20m long wooden floor), and this passage continues to inside the nest looking like a cross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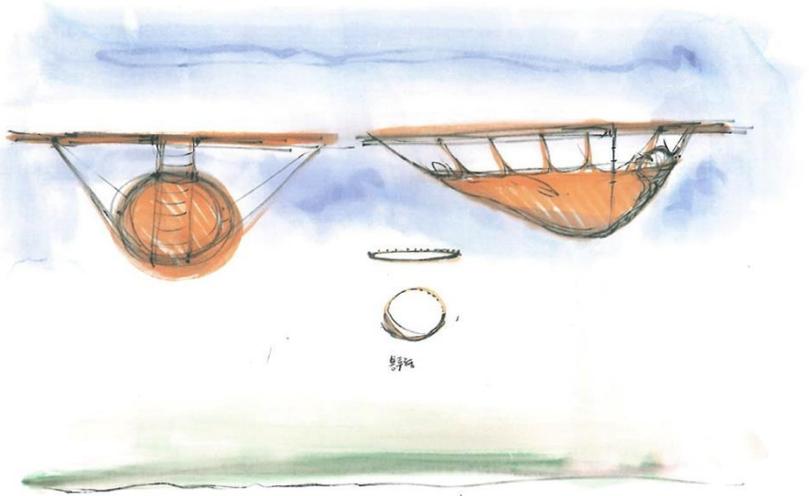
카와마타 타다시는 관객이 그들의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만드는 장소특정적 임시 구조를 만든다. 집, 피난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아이디어들과 관련된 설치물을 공적, 사적 공간에 설치한다. 건축가처럼 프로젝트 계획과 풀리우 스타디에 기반한 작업을 시공하는 팀을 꾸리고 있다. 도쿄와 파리에서 활동하며, 폼피두센터, 방돔 같은 세련된 도시의 빌딩 파사드에 남루한 나무 오두막을 지었다.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그의 현장 작업에는 쌓아올린 의자로 지은 동지 쉼터, 매립 나무로 만든 천장 캐노피 등이 있다.

Kawamata Tadashi constructs temporary site-specific structures that ask viewers to reassess their environments. Engaging with ideas of home, shelter, and social contexts, Kawamata creates installations for both public and private spaces. Like an architect, he assembles a team to collectively build works based on his project plans and plywood collage studies. Based in both Tokyo and Paris, he has built humble tree huts that perch on building façades in high-profile urban settings, such as the Centre Pompidou and the Place Vendôme, Paris. His in situ works across Europe and America include Cathédrale des Chaises (2012), a nestlike shelter built of stacked chairs, and Under the Water, a ceiling canopy of reclaimed wood.

이불 Lee Bul  
정자 Jungja

갈대와 억새 같은 지역의 식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정자'는 새의 둥지, 누에고치를 닮은 유기적인 형태의 아네스 구조다. 공중정원과 대나무 다리에 붙들려 있다. 식물의 섬유를 짜고 엮는 기술을 이용해서 자연환경과 작업을 엮어내고, 그 안에서 각각의 관객이 둘러싸이는 듯한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 나는 종신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질문, 또 이 부지의 역사적 맥락과 생태계에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Made of locally sourced plants such as thatched reed and silver grass, this *Jungja* will be an annexed structure in an organic form resembling a bird nest, or a cocoon, suspended from the Floating Garden, the bamboo passage. By using knitting or weaving techniques with plant fibers, this work will blend in with its nature environment, allowing each viewer an immersive, private experience in it. In this work, I continue to tackle the perpetual question of time and space, also in relation to the site's historical context, and its eco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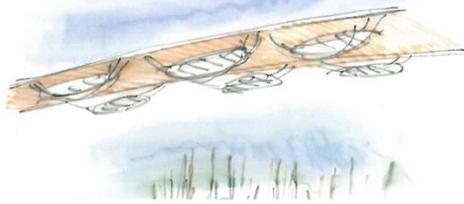
대나무 다리 지지구조의 형태를 보여주는 개념 스케치  
Conceptual sketch showing possible shapes of suspend structure from the bamboo pa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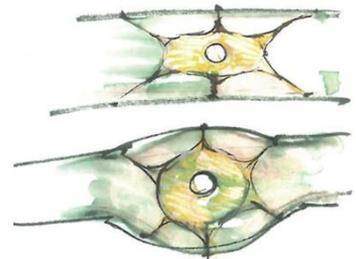
입면의 모습  
Elevation view



단면의 모습  
Cutaway view



밑에서 바라본 모습  
View from the bottom



개략도  
Overhead schema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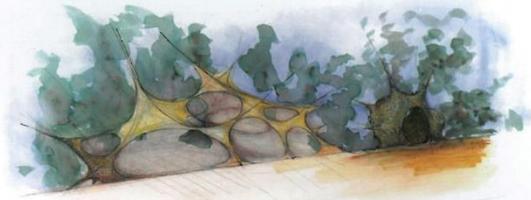
이불은 홍익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뉴욕 현대미술관, 파리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도쿄 모리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1999년 제 48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날카로운 사회비판과 역사의식, 유토피아에 관한 인본주의적 탐구 속에 개인적 내러티브를 투영한다. 감별하고 실험적인 그의 작업은 작가 고유의 기법, 색채와 경계를 허무는 파격적인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다.

Lee Bul received a Bachelor of Fine Arts in sculpture from Hongik University. Le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museums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Seoul, Musée d'Art Moderne Grand-Duc Jean in Luxembourg, Mori Art Museum in Tokyo, 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 in Paris, and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Her multifaceted production is representative of the most innovative aesthetic currents shaping contemporary art in the global sphere, blurring boundaries between technique and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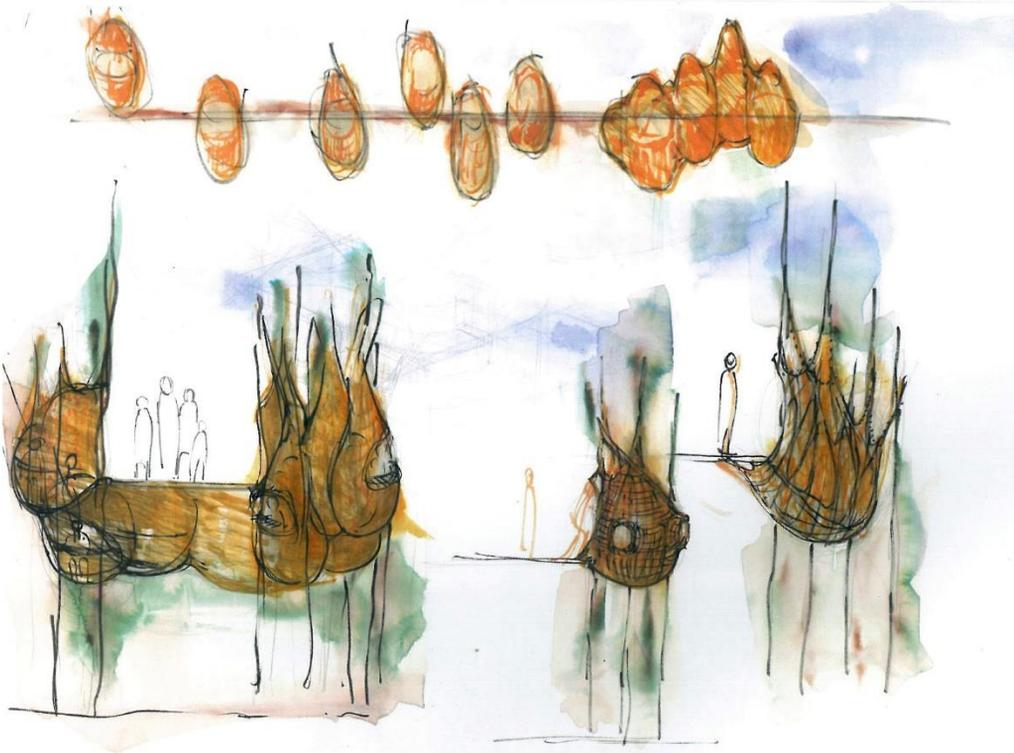
— Type A



새둥지, 혹은 누에고치 기념 스케치  
Conceptual sketch showing the expanded bird nest or cocoon structure



짜임의 형태는 여러 스케일로 발전된다.  
The knitted form can be developed in various scales.



대나무 다리물 따라 구조를 형성하는 작업의 스테디  
Various studies on formulating the structures alongside the bamboo passage

———— Type B

스튜디오 아더 스페이스스 /  
올라퍼 엘리야슨 & 세바스찬 베흐만

Studio Other Spaces /  
Olafur Eliasson & Sebastian Behmann

물방울 파빌리온

Condensation Pavilion

주어진 환경, 즉 13km 이어진 공중 통로를 따라 바람, 안개, 그리고 숲이 모여 만들어내는 고요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파빌리온이다. 이 장소에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안개를 모아 물방울로 응결시키고, 이는 DMZ를 가로지르는 강 속으로 흘러 들어가 바다로 사라져가며 환경의 순환과 직접 관계를 맺는다. 이 작품은 우리가 환경, 모든 생물들과 맺는 관계에 대해 사색하는 평화로운 현장을 만들어내며, 주변 환경과 대화를 시작한다. 바람이 많고 안개가 잘 끼는 DMZ의 풍경 사이 저 멀리, 목재 통로 위로 커다란 고리들이 보인다. 각각의 고리들은 대나무를 꼬아 만든 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들은 안개 속에서 수분을 모을 수 있게 디자인된 패브릭 망의 틀을 이루고 있다. 망 위에 생겨난 작은 물방울은 파빌리온 중앙에서 시작해 강으로 흘러 나가는 나선형의 시냇물 속으로 유입된다. 인간들이 관여할 필요 없이, 날씨가 직접 안개 수확의 과정을 촉발한다. 60여 년간 인간의 간섭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번성해온 DMZ의 환경처럼, 파빌리온은 인간 관객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닌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며, 설령 인간이 자각하지 못할 때에도 기능을 수행한다. 디자인의 중심은 걷는 행위이다. 구조물은 통로를 따라가는 단 하나의 정적인 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풍경 속으로 여행이 가지는 변화하는 시점을 따라 흘러가게끔 디자인되었다. 방문객들이 통로를

따라 이동하면 파빌리온이 생겨나고, 진화한다. 어떤 방향에서부터 접근하더라도 관람객들은 얼핏 보아 흩어진 것처럼 보이는 고리들이 하나의 대칭 패턴으로 응집되는 지점에 도착한다. 남쪽과 북쪽에서 온 관객들이 공유하는 조화의 비전이다. <날표 내용 중 정리>

The *Condensation Pavilion* is a pavilion made of its own environment—the wind, the fog, and the forest come together to create a tranquil space situated along a 13km long raised pathway. The pavilion engages directly with the cycles of the environment, collecting the fog that occurs naturally on site and condensing it into a spiraling stream that flows into the passing river, crosses the DMZ, and disappears into the sea. The work thus enters into a dialogue with the surroundings, creating a peaceful site to contemplate our relationship to the environment and to all living creatures. Visible from afar and set within the wild, misty landscape of the DMZ, a cluster of large rings rises up above the wooden pathway. Each ring, made from entwined strands of bamboo, frames a sheet of fabric mesh designed to capture the moisture from the fog. The droplets that form on the mesh are then channeled into a small

stream that flows out from the centre of the pavilion, coiling outward until it reaches the river. The weather directly triggers the process of fog harvesting, with no need for human involvement. Addressing a non-human as well as human audience, the pavilion functions in the absence of any sentient witness, just as the environment of the DMZ itself has flourished for over sixty years, indifferent to human intervention. Central to the pavilion's design is the act of walking. The structure is not designed to be a single, static point along the path, but to follow the shifting perspectives of a journey through the landscape. As visitors move along the path, the pavilion comes into being and evolves. Approaching from either direction, they reach a point where the seemingly scattered distribution of rings suddenly coheres into a symmetrical pattern—a vision of harmony shared by visitors from south and north. <excerpt from the content of presentation slides>

스튜디오 아더 스페이스스는 건축과 예술을 다루는 국제 사무소다. 올라퍼 엘리야슨은 설치,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등을 전방위로 다루는 비주요 아티스트다. 세바스찬 베흐만은 드레스덴 공대를 졸업하고 건축사무소 프린츠베흐만을 베를린에 개소했다. 2001년부터 올라퍼 엘리야슨과 협업했다.

Studio Other Spaces is an international office for art and architecture, founded by artist Olafur Eliasson and architect Sebastian Behmann in Berlin in 2014. As an architectural counterpart to Studio Olafur Eliasson, Studio Other Spaces focuses on interdisciplinary and experimental building projects and works in public space. Olafur Eliasson is a visual artist who works in a wide range of media, including installation, painting, sculpture, photography, and film. Sebastian Behmann, co-founded the architectural office PrinzBehmann in Berlin after graduating from the Technical University of Dresden. He has worked with Olafur Eliasson since 2001, and is currently head of the department for design and development at Studio Olafur Elias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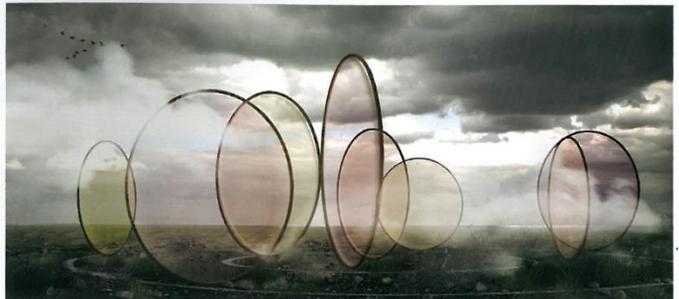


“물방울 파빌리온”의 위치  
The location of Condensation Pavilion



작은 물방울들은 공기 중으로부터 수집되고, 나선 모양을 그리며 흘러가는 작은 사냇물 속으로 유입되어 이웃한 강물 속으로 들어간다. 이 과정은 사람의 관여가 없이, 날씨에 의해 직접 이루어진다.

Water droplets are collected from the air and channelled into a small, spiralling stream that flows out to the nearby river. This process is directly activated by the weather, without need for human involvement.



## 스튜디오 뭄바이 Studio Mumbai

### 정자 Jungja

정자는 문화 전이의 진화론적 모델로, 문화구성적 구조물로 여겨져 왔다. 천상의 조경을 담은, 우리의 '정자'는 형태와 목적에서 독립적인, 무질서한 파빌리온의 그룹이다. 상상의 구조물은 초월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선 드로잉의 섬세함을 상기시킨다. 타지아(Tazia)는 성인을 기념하기 위해 생산된 미니어처 기념비다. 기느디란 대나무 조각은 디자인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만들어진 복잡한 구조이다. 타지아 제작자는 타지아를 만달라(Mandalah)로 축소시키는 복잡한 과정을 구전으로 습득한 장인으로 구성된 팀을 지휘한다. 이는 남만이나 향수가 아닌 과학적, 기술적 관심으로부터 나오는 상징적 형상으로 우주물

묘사하는 시간과 기하학을 암시한다. 이는 기초와 근본을 필요로 한다. 설화에서는 오히려 비선형적인 기술을 통해 적정 기술을 재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한 발견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필수적이다. 설화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암묵적인 지식을 전수한다. 각 시대에서 적절한 답을 구하면서 말이다. 특히 직관적이고 이성적이며, 주관적인 동시에 객관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인류가 생존하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이다. 대나무는 아주 기본적인 재료이고 다루기 쉬워 사용에 용이하다. 자연소재로서 보편적이고 현대적이며 오늘날 적합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

복쪽과 남쪽이 피난처의 풍경을 만드는 공동의 행동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함께 모인다. 우리는 메타랜드스케이프(meta-landscape)를 집합적 문화의 상징으로 본다. '또 다른 시간'의 대상인 시간과 공간을 횡단할 수 있다. 이는 언제나 존재해왔으며 물질성을 뛰어넘어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다. <발표 내용 중 정리>

The *Jungja* has been conceived as a memetic structure: an evolutionary model of cultural transfer.

Mimicking a celestial landscape, our *Jungja* is a group of massless pavilions, each

independent in form and purpose. The imaginary structures evoke the delicacy of line drawings forming transcendental spaces. Tazias are miniature cenotaphs, culturally produced to commemorate a saint. Thin bamboo strips are used to make complex structure with very little or no design drawing. The master Tazia maker instructs a team of artisans through verbal narration in the building of the complex understructure of the tazia into mandalas: symbolic imagery alluding to time and geometric representations of the universe, the inquiry of rudimentary and elemental—not from



nostalgia or romanticism but out of a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interest. Lore is what allow for the rediscovery of appropriate technology through a rather non-linear narrative. These serendipitous discoveries are imperative in a world that is constantly changing. Lore carries tacit knowledge through past, present and future—answers to each time lie in its appropriation. Most importantly, it is intuitive and rational, and subjective and objective at the same time, which are essential to both survival and nourishment of mank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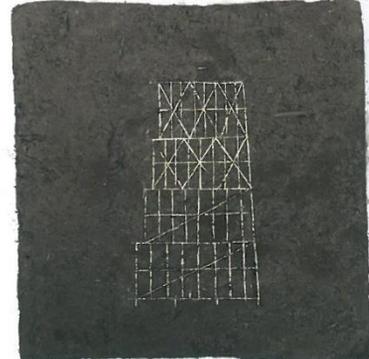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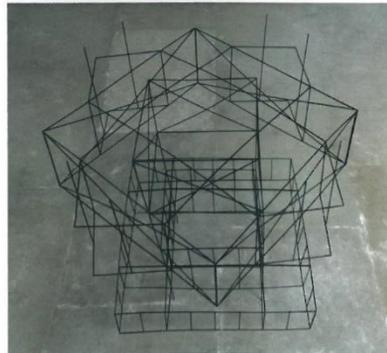
Bamboo as a material is very basic and has certain ease of means and an agility to it. As a natural material it possesses qualities that make it universal, contemporary and relevant to today's time.

North and south come together in the idea of the communal act of creating a landscape of shelters. We look at the meta-landscape as a symbol of a collective culture, one with the capacity to traverse time and space: an object 'of another time', one that has always existed and will continue to exist beyond its own physicality. < excerpt from the content of presentation slides >



스튜디오 뭄바이는 비요이 제인이 설립했다. 디자인한 작업을 직접 시공까지 하는, 숙련된 장인과 건축가들의 인적 인프라다. 오랜 시간 동안 모인 이 그룹은, 대규모 실물 모형, 재료 연구, 스케치, 그림 등을 만들며 아이디어가 탐색되는 반복적인 프로세스에서 생성된 환경을 공유한다. 프로젝트는 전통 기술, 지역건축 기술, 재료, 제한된 자원에서 비롯된 독창성 등이 반영된 실행과 장소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발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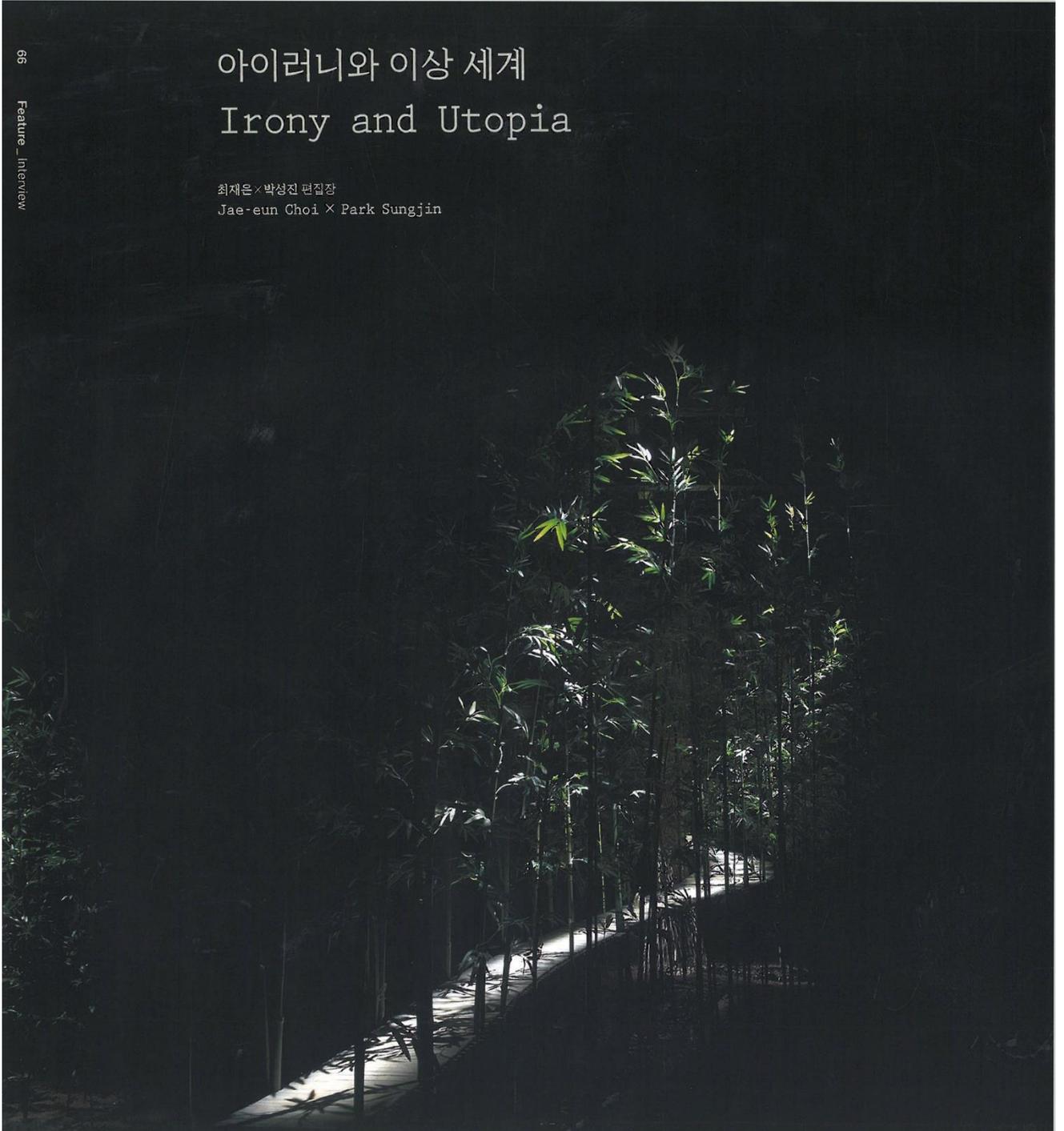
Studio Mumbai, founded by Bijoy Jain, is a human infrastructure of skilled craftsmen and architects who design and build the work directly. Gathered over time, this group shares an environment created from an iterative process, where ideas are explored through the production of large-scale mock-ups, models, material studies, sketches and drawings. Here projects are developed through careful consideration of place and a practice that draw upon traditional skills, local building techniques, materials, and an ingenuity arising from limited resources.



— '대지를 꿈꾸며...'의 정자 프로젝트, 2017  
Proposal for the Jungja of 'Dreaming of Earth' project, 2017

# 아이러니와 이상 세계 Irony and Utopia

최재은 × 박성진 편집장  
Jae-eun Choi × Park Sungjin



**박성진(박):** DMZ의 보존과 활용을 둘러싼 서로 다른 생태학적, 사회학적, 문화적 관점들이 존재하고 때론 이들이 충돌을 겪기도 한다. 사실 이 프로젝트도 그런 다양한 입장 가운데 일부를 견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당신은 DMZ를 어떻게 바라보며,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재은(최):** 대답에 앞서, 다양한 시각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여러 의견이 있다는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DMZ는 우한정의 아이러니가 담긴 공간이다. 이렇게 특별하고 이상한 공간은 지구상에 없다. 나는 이곳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이한 곳이다. 앨런 와이즈먼은 그의 저서 『인간 없는 세상(원제: The World Without Us)』의 아이디어를 DMZ에서 얻었다고 했다. 생명체들이 자생하고 존재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그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다. 군사적으로 설정한 완충지대이지만 반면에 생명체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그 실제 자체에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명의 보고이지만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영토라는 아이러니. 수많은 많은 죽음이 묻힌, 여러 레이아웃이 겹겹이 있고 오랜 시간이 축적된 땅이다. DMZ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마주하면, 마치 그곳에서 죽은 영혼들이 떠오른다. 생명체들이 주는 경이로움이 있는 반면, 순효상도 언급했듯이 수많은 지뢰가 묻혀 있고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슬픈 역사가 담긴 곳이다. 통일의 꿈을 꾸고 있다. 공중정원과 정자에 꿈을 담은 것이다. 꿈이 없으면, 그냥 군사 완충지대일 뿐이다.

**박:** 환경미술 작가 최재은이 DMZ라는 장소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나?

**최:** 외국에 살다 보면 자기 나라에 대한 애정이나 인식이 더 깊어진다. 베를린에 오래 살면서, 베를린 장벽을 매일 봤다. 통일될 때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을 현장에서 맞이했다. 아마 그 감격을 다시 느끼고 싶은 바람이 내재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독일 통일 10주년인 2000년에 영상 작업을 했다. '길위에서(On the Way)'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인간이 만든 경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했다. 아우슈비츠에서 촬영을 시작했다. 베를린 시내의 장벽 흔적들과 볼타다 재건된 베를린 국회의사당 등 여러 곳을 촬영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지역에 살아있는 나무들, UN에서 허가를 받고 판문점에서도 촬영했다. 9살 여자가이 문근영을 성외해 판문점에서 서서 시를 낭송하게 했다. 판문점에 가면 군인들은 대치해 있는데 별과 개미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인간이 이렇게 허무맹랑하구나. 이것이 DMZ를 다룬 첫 작업이다. 2014년에 김선정이 'Real DMZ'에 초대해줘서 'No Borders Exist in Nature'라는 텍스트 작업을 낸 적이 있다. 공예도성이 있는 평강도원은 정말 편편하고 아름다운 평야다. 평화로운 그곳을 보면서, 여기에 다리를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상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꼭 정치적 통일을 안 하더라도 '이 안에서만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을가' 이런 말 그대로 이상적인 상상을 했다. 그때 조민석도 있었는데 "여기에 다리를 하나 놓을까봐" 이런 대화를 했다. 이게 시초다. 내 말을 믿어주고 따라주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다리를 디자인해줄 사람은 시계루 반밖에 없다. 시계루 반에게 연락해서 나랑 같이 할 거냐고 물어봤다. 흔쾌히 하겠다고 했다. 조건은 공중이어야 하고, 자연과 호흡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했다.

**박:** 작가들을 선택할 때 미술계에서 오르지 그들의 작가적 지위만이 중요한 척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 그들이 갖고 있는 형식 어휘보다는 '대지를 꿈꾸며...'가 갖는 배경, 즉 무엇보다 분단이라는 사회정치적 상황, 민족, 전쟁이라는 배경을 이념적, 역사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덴마크의 올라퍼 엘리아슨, 인도의 스튜디오 롬바이, 일본의 카와타타 타다시의 설의에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최:** 우리 역사에 대해 알고 있고, DMZ가 평화로워지기를 굉장히 원하는 작가들이다. 지구상에 분단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공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수많은 생물을 존중하고, 한국의 현대사를 나름대로 공부했다. 작가 선정의 첫째 조건은 자연과 소재에 대한 성찰이 있는지였다. 장르와 국적 등을 초월할 수 있다. 올라퍼 엘리아슨의 개념은 우리의 문화와 순환과 닮았다. 천연 대나무 구조물에서 맺힌 물이 강물로 흘러들어간다. 동양의 철학과 닮아 있다. 한국사를 우리보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크게 지구를 생각했을 때 깊은 데에 도달한 작가들이다. 스튜디오 롬바이의 철학도 분명하다. 분단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건을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작업과 작가들이라 판단했다. 카와타타 역시 소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고 공간적 해석과 표현이 가능한 훌륭한 작가다. 모두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생태계에 대해 애정이 크다. 사실 DMZ가 남북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구의 모두가 공유할 이슈다. 더 유연하게 봐야 한다.

**박:** 실존하지만 경험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해서 작가들은 작품의 출발을 직접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연과 인류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여기서 DMZ라는 땅과 문화의 구체적 특수성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인가? 아니면 DMZ를 두고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탐구가 먼저였는가?

**최:** 작가들에게 DMZ의 역사나 특수한 상황을 전달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그곳은 지도도 정확하게 없다. 물론 구글 위성지도 중심으로 나와 조민석이 업데이트하긴 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전달했다. 작가들에게는 이념보다 생태에 대한 주제가 더욱 편한 접근이었을 수 있다. 특히 외국작가들에게는.

**박:** 현존하지 않는 공예도성은 이번 '대지를 꿈꾸며...'의 선행적 구성에서 사실 단절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이번 프로젝트의 구심점일 수도 있다. 공중정원 외 공예도성에 대한 장소적 역할 정의를 되묻고 싶다. 이곳에 대한 어떤 식의 개념도 불필요하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지도에 선명하게 그려진 이 선의 정체는 무엇인가?

**최:** 만약 지뢰제거를 한다고 해도 큰 나무는 제거하지 못하는데 잡초는 제거할 수 있다. 드론이 다닐 만한 길을 내기 위해 풀을 베어내야 한다. 큰 나무가 많지는 않다. 아무래도 지반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 선은 위성지도도 통해 숲이 덜 무성한 데를 골라서 길을 잡아본 것이다. 중심에는 공예도성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공예도성의 건축이 아주 특이하다. 평지성이다. 밑에는 돌이고 흙벽인데, 담이 참 아름답다. 맨 처음에는 공예도성 복원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은 복원에 반대하는데, 공사하게 되면 성의 지하에 있는 수없이 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훼손될 수도 있다. 생태계에 많이 망가질 것이다. 즉 지도의 선이 현재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구조물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고증을 통해 확인한 공예도성의 경계이다.

**박:** 예술과 건축에 관한 시도는, (특히 DMZ 같은 장소는) 언제나 현실의 이념 대립 속에서 존재한다. 이번 제안도 한국 사회 내부의 이념적 대립 속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을 텐데 기획자로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무엇인가?

**최:** 출근 외국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정치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약간 유연한 사람이라고 본다. 이것을 우리끼리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전 세계의 자산이다. 국내외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이념을 앞세우면 굉장히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 발짝 비켜서 생태, 지구환경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생태계의 특징이 유연성이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유연하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해야 한다. 서로 다투지 말고 큰 시각에서 이 장소를 바라봐야 한다.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고 뜻에 동참해야 한다. 여건이 허락하면 학자들도 더 많이 참여시키고 싶고 이 공간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은 딱딱하면 부러진다. 너무 굳어 있다. '어떻게 유연하게 해야 하나'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념을 잠깐 뒤로 두고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면 영원히 이러한 이상적인 꿈이 실현될 수가 없다. 만약 통일이 되더라도 중구난방 개발이 될 것이다. 지뢰를 없앴다고 땅을 갈아엎어버리는 것도 걱정이다. 재래종, 멸종위기종이 사라질 수도 있다.

**박:**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은 전시라는 형식을 통해 주로 공개된다. 그런데 전시가 아닌 일시적인 발표회의 성격을 띤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프로젝트의 다음 스텝은 어떤 내용과 형식을 가질지 이야기해줄지 바란다.

**최:** DMZ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는 게 급하다. 철원 지역 재래종에 대한 사진을 내가 만들었다. 어디에서 배긴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스튜디오에서 조사하며 직접 만든 것이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관심과 인지가 가장 먼저다. 알아야 지킬 수 있다. 공예도성이나 생태계는 대단한 보물이다. 종자은행이 돈 맡기는 일반 은행보다 더 중요하다. 종자가 없으면 먹을 게 없어진다. 일회성 전시보다 중요한 일들이다. 북한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요성에 대한 공감 있으면 오히려 정치적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시는 준비 중이다. 작가를 3~4팀 더 섭외할 계획이고, 해외에서 먼저 개최할 것 같다.



Installation view of the 'Dreaming of Earth' at the 2016 Venice Biennale, courtesy of Studio Jae-eun Choi, photographed by Kim Taedong

**Park Sungjin (Park): Mutually exclusive ecological and sociological cultural perspectives exist regarding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DMZ, and these perspectives sometimes collide with one another. Between these various opinions, this project can only but account for some of them. Therefore, I cannot but wonder what your views are on the DMZ, and what your definition might be?**

Jae-eun Choi (Choi): Before answering, I must say that I have a favourable view towards this multiplicity of opinions as I feel that it is necessary to welcome a number of viewpoints on this issue. The DMZ is a space full of unlimited ironies. There is no place on earth as special and strange as this, and I want to look at this place in an optimistic way. It is a very unique place—there is no equal in this world. Alan Weisman said that he got his idea for his book *The World Without Us* from the DMZ. It is ironic that in the DMZ, living organisms sustain themselves and exist. I think that this should be the main point. It is free, unrestrained by ideologies. Despite being a militarily-designated buffer zone, the fact that living organisms are proliferating there is astonishing and I want us to formulate an interest in that state of affairs. The irony of a territory where life exists, but no humans live. It is a ground where countless dead are buried, where countless numerous layers accumulated over the decades lay as sediment upon one another. When one encounters living organisms living within the DMZ, one feels as if one is encountering the dead spirits wandering there. While it evokes a sense of awe from looking at these living organisms, as Seung H-Sang once mentioned, it is also a place containing tragic memories, as well as a place where many mines are placed, with respective military forces at a standoff with each other. It is dreaming of a time of reunification. This dream has permeated the hanging garden and the pavilion. Without such a dream, it will just remain as a military buffer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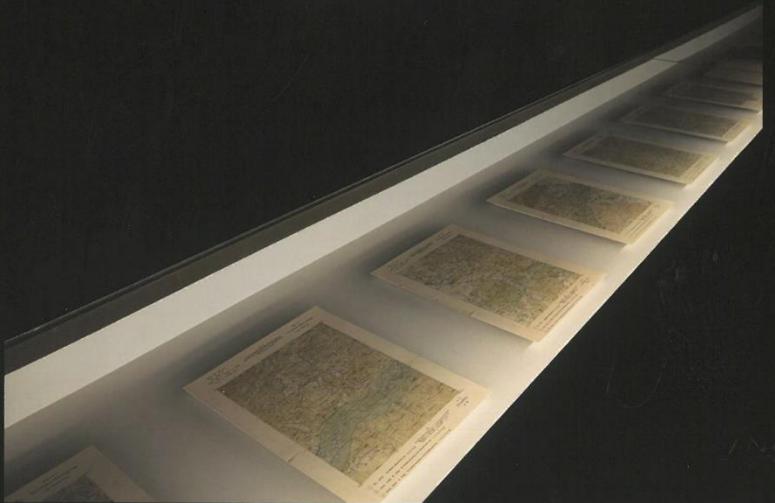
**Park: When was the first time that the DMZ became an interest in your environmental art? How far does it go back?**

Choi: One starts to develop deeper feelings for one's own country when living in a foreign land. Having lived in Berlin for a long time, I had the chance to look at the Berlin Wall every day. I had a first-hand experience of that moving moment when reunification occurred. Perhaps, it is me wanting to relive that experience.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German reunification, in 2000, I produced a video work. Through this video, titled *On the way*, I explored the question of what man-made borders really mean. I began the recording at Auschwitz. I captured the remains of the Berlin Wall in the city, the Berlin National Assembly Building which was burnt down and rebuilt, and many other places. I also captured the trees that grow close to the bombed sites of Hiroshima and Nagasaki, and also the Panmunjeom with permission from the UN. I also cast Moon Geunyoung, who was a 9-year old girl at that time, to read a poem at the Panmunjeom. When one goes to the Panmunjeom, one can see the soldiers facing off each other, but the bees and the ants move about freely. I thought to myself: humans can be so absurd. This was my first project on the DMZ.

In 2014, thanks to an invitation from Kim Sunjung to participate in the 'Real DMZ', I had the chance to submit a text work titled *No Borders Exist in Nature*. The Pyeongyang Plateau, where the remains of Gung-ye Castle are located, there is a very flat and beautiful plain. Looking out over that peaceful landscape, I thought that it would be nice to place a bridge there. By creating an ideal space, I imagined an ideal picture where we could simply hang around peacefully at that place regardless of the progress of reunification. Minsuk Cho was also there at that time, and we discussed placing a bridge there. This was the starting point. The only person who trusts and follows my words while being capable of designing a structurally safe and environmentally adaptive bridge is Shigeru Ban. I contacted Shigeru Ban and asked him if he wants to join. He agreed enthusiastically. The condition was that it should be above ground, and that it should be in harmony with nature. We began like this.

**Park: I assume that the status of the artist was not the only important criterion when selecting the participating artists. Going beyond a merely formal vocabulary, now more than ever it is necessary to share ideolog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surrounding the background to the sociopolitical situation of division, of nation, and of war—as portrayed within the background of 'Dreaming of Earth'. With this point in mind, I would like to hear your explanation for inviting Olafur Eliasson from Denmark, Studio Mumbai from India, and Kawamata Tadashi from Japan.**

Choi: They are artists who know of our history and truly desire the restoration of peace to the DMZ. They are people who agree that the tragedy of being divided should not exist in this world. They respect life, and have studied modern Korean history on their own. The first condition for choosing the artist was to consider whether the artist had the ability to contemplate nature and materials. This goes beyond genres and nationalities. The concept behind Olafur Eliasson's work has similarities with the Buddhist idea of eternal cycle and circulation. The collected water in the natural bamboo structure flows into the river. This is much connected with the East Asian philosophy. They may not have as intimate a knowledge of Korean history as we do, but they are artists who have each arrived at a deep contemplation that goes beyond mere borders. The philosophy of Studio Mumbai is also very clear. I judged that they are artists that seek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by going beyond fixed events such as division and war. Kawamata is also a talented artist who possesses deep insight in his use of materials and is capable of spatial interpretation and expression. They are all people who dream. They have great affection for the ecosystem. Actually, the DMZ is not merely a problem of the two Koreas. It is an issue that the whole world should share. We need to look at it more flexibly.



**Park:** Regarding places that exist but cannot be experienced first-hand, the artists can only rely upon indirect experiences, indirect knowledge, and universal values of nature and humanity as their starting point. In what form did you want the DMZ to appear? As a place defined by its unique cultural relevance? Or was the exploration of universal human values a higher priority for the DMZ?

Choi: Needless to say, I explained the history and unique circumstances of the DMZ to the artists. Strictly speaking, that place is not even accurately portrayed on a map. Minsuk Cho and I updated the information of the place by using satellite images from Google. We tried to explain it to them in the greatest detail possible. Perhaps, the theme regarding the ecosystem, in contrast to the theme regarding the ideology, would be an easier point of access for them. Especially for foreign artists.

**Park:** The Gung-ye Castle, which does not exist, can both act as an element of rupture in the lineal composition of 'Dreaming of Earth' as well as a central element in this project. I would like to ask again about how you define the locational role of the hanging garden and the Gung-ye Castle? Do you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do something to this place? If so, what is the meaning of the line clearly drawn across the map?

Choi: Even if we were to begin removing the mines, the big trees, the grass cannot be removed. We need to cut out the grass for the drones to move. There are not that many trees. I think that this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geography. The line is a route that we planned by using the satellite images in order to avoid heavily forested areas. The location of the Gung-ye Castle is marked at the centre. The architecture of Gung-ye Castle is very special. It is built on a flatland. The bottom is made of stone, the walls are made of clay, and the wall fence surrounding it is very beautiful. At first, the restoration of the Gung-ye Castle was part of the project, but now we are opposed to it as the countless artifacts buried beneath the Castle may suffer damage during construction. It will also damage much of the surrounding ecosystem. The line on the map does not delineate the structures currently physically standing. It illustrates the wall of the Gung-ye Castle verified in historical research.

**Park:** All attempts related to art and architecture (especially in places like the DMZ) always exist within the dichotomy between reality and idea. This proposal will also have to face evaluation in terms of the ideological disagreements that exist within Korean society. As the organizer, what is the thing that you are most wary of?

Choi: Perhaps due to my long stay overseas, I see myself as a relatively flexible person who is a little removed from politics. This cannot be resolved amongst ourselves. This is a world issue. People outside of Korea also have to participate. When one pushes forward a certain ideological position, one cannot but face opposition. Instead, we need to step back and think about ecology and the environment. The feature of an ecosystem is its flexibility. The beauty of nature is that it is flexible and adaptive. We must utilize this. Instead of fighting one another, we need to look at this place from a higher viewpoint. It must be an issue that anyone from the nearest to the furthest reaches of the world can understand, contemplate, and in which they can participate. If possible, the goal is also to include more participation from academic scholars, and to make this space more malleable. If it turns brittle, it breaks. It is too rigid. If one ponders how one can make this more flexible, one must put ideology aside and focus on the ecosystem as the main theme. Without this, such an ideal can never be manifested. Even if reunification was to happen, its development would be disorientated and chaotic. The fact that the land might be entirely overhauled in order to remove the mines is also a cause for concern, as this may bring about extinction of local and near-extinct species living in the area.

**Park:** In general, such content is usually revealed through an exhibition format. What was the reason for choosing a temporary conference format instead? I would also like to hear about what kind of content and projects are planned at this project's next step.

Choi: Improving perception regarding the DMZ is our top priority. I made a glossary of local species living in the Cheorwon region. It is not a copy from somewhere—it was written out of a study that I did in my studio. For every event, interest and recognition must come first. You have to know in order to protect. Gung-ye Castle and the ecosystem are priceless treasures. The seed bank is more important than the general bank where one invests money. There is a problem when there are no more seeds and there is nothing left to eat. These are matters that are more important than the temporary exhibitions. North Korea should also develop an interest in this. When there is a shared appreciation about how important this is, it will help to ameliorate the political tension. The exhibition is still going through preparation. 3 – 4 more teams of artists will be selected, and we are currently planning to hold the first exhibition overseas.

## 공존과 평화를 위한 꿈을 응원하며

## Dream for the Coexistence and Peace

김나래 기자 / Kim Narae

사실 남북 관계와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때어놓고 DMZ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영 감감하긴 하다. 6·25 전쟁이 끝나면서 군사분계선 근방 2km씩 후퇴시켜 만들어낸 지대를 정치와 군사는 빼고 다른 관점으로 보자니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무기력한 기분은 어쩔 수 없다. 최재은이 지나다닐 때마다 눈을 땔 수 없었다고 했던 베를린의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는 독일 통일 후 자연스레 생긴 옥외 관광지이지 누군가 마음먹고 조성한 공원 같은 것이 아니다. 국경이 맞닿은 곳이나 전쟁이 끝난 세계 곳곳에 평화공원들이 있으나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아 화해가 미처 일어나지 않은 한반도의 DMZ 같은 사례는 하나도 없다. DMZ가 생태공원이 되거나 추모와 평화의 의미를 담은 성격의 그 어떤 멋진 공간이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회복되고 변화하지 않으면 껌데기만 건드리는 논의일 수 있다.

그러면 정권은 DMZ를 어떻게 다루어왔나. 1988년 노태우가 주창한 DMZ 내 평화시설 건립이나 1994년 김영삼의 DMZ 자연공원화 계획은 별다른 성과 없이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박근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에는 2014년 이후 3년간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2014년과 2015년 각각 2억 3,400만 원, 2억 9,900만 원을 쓴 '공원 구상 구체화를 위한 용역' 이외에는 진행 내역이 없다. 입지를 선정해 지뢰를 제거하고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던 초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추진 단계라고 볼 수도 없는 단계에서 사그라지고 만 것이다.

그런 DMZ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과 인식도 예전 같지 않다. 굳이 찾아보면 올해 8월에도 '2017 DMZ 평화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일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 건 있었으나, 대중의 관심과 영향이 크지 않았다. DMZ를 내걸고 온갖 마라톤, 음악회, 예술제 등 행사가 쏟아져 나오던 불과 몇 해 전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지자체가 경쟁하듯 박물관 등의 시설을 가열차게 유치하던 양상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전에도 DMZ의 독특함과 가치에 눈을 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왔다.

1960년대부터 DMZ의 생태에 대한 연구나 평화공원에 대한 논의가 줄기차게 있었다. 1980년 「SPACE(공간)」에서 'DMZ를 기념자연공원으로'라는 주제의 특집을 진행했다. 1980년의 발문의 일부를 발췌한다.

"DMZ 기념자연공원 계획은 또한 인류의 가장 불행한 전쟁, 한민족의 가장 모질었던 동족상잔의 끈질긴 뒤끝을 구체적인 평화와 화합의 길로 충격적인 전환을 시킨다는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역사를 청초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기찬 일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꿈이라도 좋다."

「SPACE」는 'DMZ를 기념자연공원으로' 구호를 '1980 공간지상캠페인'으로 이름 붙여 3개월간 DMZ 관련 기사를 실었고, 1989년 3월호와 1990년 3월, 5월, 11월호에서도 같은 이름의 기사를 구성했다. 김원석과 송기덕 등이 DMZ 기념자연공원의 계획안을 스케치했고 소흥렬, 임양재, 최기철이 생태적 의의와 방향성을 논했다. 최근의 현실적인 대안 제시도 있었다. 「SPACE」의 2014년 2월 '다시 깨어난 DMZ 평화공원' 특집 기사에서 황지욱(전북대학교 교수)은 DMZ를 거주민이 실질적으로 정주하는 행정구역으로 만들자고 했고, 김재한(한림대학교 교수)은 해외의 평화공원 사례를 들며 '과도적' 활용을 목표로 평화를 유도하는 창조적 성격의 평화공원을 제시했다.

최재은은 길고 긴 시간 DMZ를 살피고 작업했다. 기존의 국내의 연구를 바탕으로 DMZ의 동물과 식물을 꼼꼼히 조사해 그만의 동식물도감을 만들었다. 엄청난 양의 지뢰를 제거하는 방법도 탐구했다. 세계적인 작가들이 끼여 참여하게 한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지뢰투성이 야생에 파벌리온과 공중정원을 설치하고 종자은행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 모른다. 또한 언젠가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면, 최재은만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었다고 비판할 지도 모른다. 논리와 경제성을 따지는 사람도 있을 테다. 종자은행과 지뢰제거 안은 완성 단계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DMZ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많은 사람이 깨닫고 보다 활발하게 담론을 펼쳐야 하며 한 사람의 오랜 꿈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대지를 꿈꾸며...' 프로젝트가 이것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이것은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물론이고, 생기고 사라져간 온갖 DMZ 관련 단체가 수천 억을 쓰는 동안 묵묵히 혼자서 해왔다. 이 모든 것이 꿈이라도 좋다.

To speak of the DMZ without recognising the international powers that surround the Korean peninsula or acknowledging the nature of North-South relations seems pointless. Attempts to discuss an area of land that was created after the Korean War by delineating 2km of land set back from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rrespective of politics or the military implications is – like the task of trying to grasp a drifting cloud – futile. The East Side Gallery in Berlin is an outdoor tourist landmark that sprung up following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consequently, is not a place that can be replicated by sheer will. In speaking of this place, Jae-eun Choi said that it was a site she could not take her eyes off whenever passing by. There isn't a single other case quite like the DMZ of the Korean Peninsula, a place that marks a national border spotted with 'peace parks' in an age of ceasefire, a place in which reconciliation has yet to occur in a world where war has yet to formally cease. Whether the DMZ becomes an ecological park or 'trendy' place characterised by memories and peace, if the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emain unchanged and unresolved then such discussions will only treat the issue at a surface level.

How, then, has the DMZ been treated by the government throughout history? The plans of Roh Taewoo, who in 1988 advocated the construction of a 'peace facility' within the DMZ, and Kim Youngsam, who proposed converting the DMZ into a natural park in 1994, both failed to come to fruition. Although over 30 billion KRW was allotted per year in the three years since 2014 to the budge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DMZ World Peace Park – the construction of which was a campaign promise by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 other than the 234 million KRW that was spent in 2014 and the 299 million KRW that was spent in 2015 for 'services for the realisa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park', no other expenses have been recorded. The early plans to select a location and remove land mines were all in vain. The construction of the World Peace Park faded into obscurity, without a trace of this promised progress.

The affections and recognition of people towards the DMZ is unlike that noted in the past. Events like the '2017 DMZ Peace Concert' held at Imjingak this past August fail to capture the interest and influence of the general public. The atmosphere is markedly different from only a few years ago when all kinds of DMZ-themed events, from marathons, music concerts and performing arts festivals, were widespread. The phenomenon of vigorous competition observed amongst the local governments of Gyeonggi-do and Gangwon-do provinces petitioning for facilities such as museums has largely disappeared.

Even prior to this, those captivated by the uniqueness and value of the DMZ were voicing their opinions. Since the 1960s, there has been constant drive to research the ecology of the DMZ as well as to promote discussion regarding a peace park. In 1980, a special issue of *SPACE* addressed the topic 'DMZ to Memorial Nature Park'. The following is an excerpt from the postscript of that 1980 issue:

'The DMZ Memorial Nature Park plan also carries a very significant meaning in its aim to transform the legacy of most unfortunate war of mankind and to set the endless persistence of this brutal fratricidal war onto a path of concrete peace and harmony. It is a fabulous task to 'turn the history of suffering into the history of crea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may just be a dream.'

*SPACE* coined the slogan 'DMZ to Memorial Nature Park' for the '1980 *SPACE* Campaign' and published articles on the DMZ for three months. The March 1989 issue and the March, May, and November issue of 1990 were also organised under the same theme. Kim Wonsuk and Song Keeduck sketched proposals for the DMZ Memorial Nature Park, and So Heungyeol, Yim Yangjai, and Choi Gicheol discussed the ecological significance and possible direction of the park. Recently, there was even a proposal for a realistic alternative. In the February 2014 special edition issue of *SPACE* – 'Re-awakened DMZ Peace Park' – Hwang Jiwook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oposed the creation of an administrative district within the DMZ that is actually inhabited by residents, while Kim Jaehan (professor, Hallym University), citing cases of overseas peace parks, proposed a peace park with a creative character to encourage peace under the objective of 'transitional' utilization.

Jae-eun Choi created works based on her extensive studies of the DMZ. Utili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he thoroughly researched the fauna and flora within the DMZ to create an illustrated guide to the plant and wildlife of the DMZ. She even explored methods for removing the vast number of landmines. International artists have been invited to participate. It will certainly be difficult to set up pavilions and public gardens, and to build seed banks in a militant, mine-ridden wilderness. Even if this may one day be possible, it may be difficult to attribute this idea solely to the unique vision of Jae-eun Choi. There may be people who quibble over its logic and economic feasibility. Seed banking and landmine clearing are not the complete and final stage of this area's transformation. However, what is clear is that many people are beginning to realise the significance of the DMZ and that more active discourse must unfold. The 'Dreaming of Earth', which faithfully embodies the dreams and passions of one individual, is enough to trigger this process. As Choi stresses, this is something only artists can do. While various organisations and agencies related to the DMZ (not to mention public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spring up and disappear, all the while spending millions in public funds, these artists operate quietly behind the scenes. It is a fabulous task regardless of whether it may just be a dream.